


www.danojefestival.or.kr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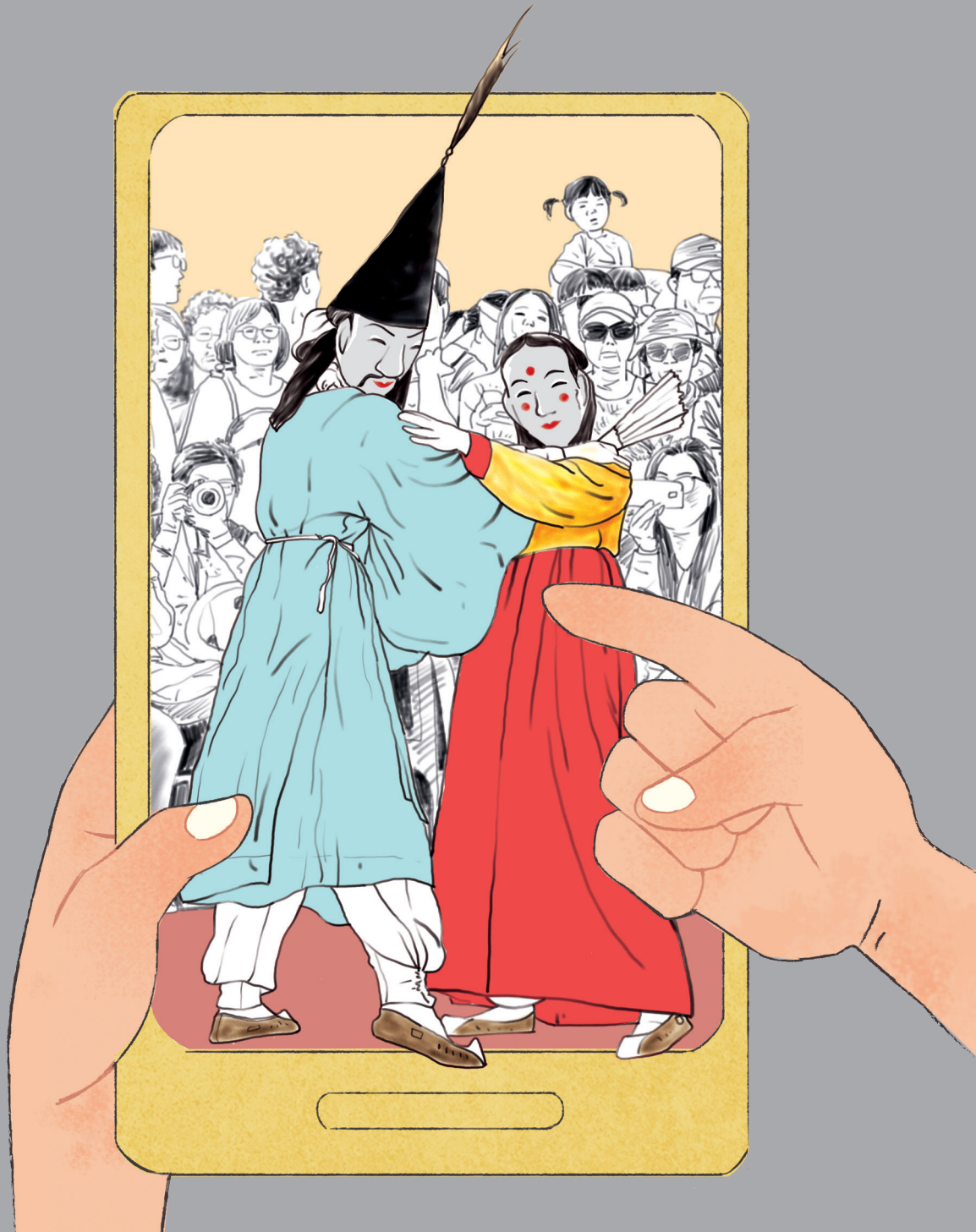
 사|강릉단오제위원회  
Gangneung Danoje Festival Committee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천년의 축제

수릿날,  
강릉

제 15 호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PLAY  
THE  
DANO  
www.danojefestival.or.kr



04 발간사 / 김동찬(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LINK THE DANO 단오, 온라인에 접속하다.

- 08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축제의 새 지평을 열다
- 12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무엇이 달라졌나
- 16 신주미 봉정의 진화
- 19 <화제의 인물> 호주에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참여한 메트 존스
- 20 <심층인터뷰>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기획에서 실행까지  
김문란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장
- 24 <전문가 기고> 팬데믹 시대의 강릉단오제  
전방욱 강릉원주대 교수

PLAY THE DANO 단오, 온라인에서 놀다.

- 32 단오TV 스튜디오 현장 이야기
- 34 16가지의 즐거움
- 56 빅데이터로 보는 강릉단오제

JOIN THE DANO 단오, 온라인으로 모이다.

- 70 신과 인간의 온라인 만남
- 73 <인터뷰> 김운석 단오굿 무격부 이수자
- 74 단오등, 오방천 휘날리며 신과 인간을 잇다
- 75 <인터뷰> 단오등 디자인·제작자 최용주 자작나무 대표
- 76 OR코드 찍으면,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열린다
- 77 OR코드 참 쉽네, 포스터 디자인 스토리

OPEN THE DANO 단오, 온라인으로 새롭게 열다.

- 80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설문조사 분석
- 88 <좌담회>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이야기하다

부록

- 94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언론 보도
- 110 2020 강릉단오제위원회 News

올해의 단오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년의 단오를 기대합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김 동 찬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상 초유로 진행된 온라인 단오. 시끌벅적한 남대천은 만날 수 없었지만 손 안에 들린 휴대폰으로, 가정에 있는 TV로, 월화거리에서 만나는 전광판으로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천년의 맥을 이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인 단오굿은 실시간 스트리밍과 해설이 있는 중계로 만났고 매일 2시간 강릉단오제와 강릉단오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단오TV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해마다 이어온 나눔의 정신은 단오주와 수리취떡을 나눠 먹는 배달의 단오로, 단오체험촌에서 나날이 숨씨를 뿜내던 아이들의 허전함은 단오체험팩 택배로 대신 전했습니다.

즐거운 얼굴을 만나 안부를 묻고 감자적과 단오주를 나눠마시며 즐기지 못한 아쉬움은 SNS 좋아요와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위기의 상황,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  
강릉단오제만의 방식으로 치러졌던 시간.  
그리고 강릉시민들의 참여가 빛났던  
올해의 단오를 기록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신주미 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100가마의 쌀이 모였습니다. 온라인 단오의 정신을 이어가며 나눔의 마음을 이어가는 강릉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에 감동받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울러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너무도 당연한 일상을 빼앗긴 분들에게 숨이 트이는 행사가 되었기를 바라며 모두의 힘을 합쳐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축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 강릉단오제만의 방식으로 치러졌던 시간. 그리고 강릉시민들의 참여가 빛났던 올해의 단오를 기록합니다.

강릉단오제는 언제나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위기 속 온라인이라는 첫 시도였지만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도 천년단오의 정신인 시민참여의 역사를 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온라인으로 즐겼던 재미와 더불어 실제로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행복까지 더해진 내년의 단오까지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불꽃놀이가 빛나는 남대천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단오, 온라인에 접속하다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축제의 새 지평을 열다

글 박경란



2020년 새로 제작된 단오등

## 코로나19에도 단오는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강릉단오제는 멈추지 않았다. 2020년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 같은 축제가 어려워지면서 남대천 단오 축제장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것이다. 새로운 상상력이 더해진 신선한 시도였다.

언급될 때 마다 '천년 축제'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강릉단오제는 오랜 역사 만큼이나 슬한 난관과 역경을 극복해 왔다.

암흑의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 강릉시내에 있던 대성황사가 헐리면서 관민공동의 행사였던 강릉단오제가 심각한 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현재 남대천 둔치로 축제의 장을 옮기면서 중앙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6.25전쟁 통에도 단오제는 멈추지 않았다. 강릉 출신인 고 최승순 강원대 교수는 2009년 율곡학회에서 펴낸

'강원여지승람- 전쟁 통에서도 꽃피운 교육열과 단오 문화'라는 글에서 "휴전 막바지, 생사를 건 전쟁이 치열한데, 강릉에서는 단오 행사가 한창이었다. 남대천 다리를 통해 삼척으로 부상병들을 실은 군용트럭이 수도 없이 먼지를 피우며 달려가는데, 그 트럭이 다니는 국도 바로 옆에서는 단오의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참으로 우리 민족, 우리 역사는 불가사의한 데가 있는 민족이요, 역사라 생각했다.(중략) 전쟁과 평화가 한 스크린에 겹쳐져 있어 어느 것이 실상이고, 어느 것이 허상인지 분간키 어려웠다."고 6·25전쟁 당시 단오장 풍경을 회상했다.

이처럼 천년 축제 강릉단오제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은 물론 사스, 구제역 등 각종 난곡에도 끊임없이 이어져오며 영동지역 주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다만 일제강점기인 1932년과 1936년 전염병과 가뭄 등으로 각각 강릉단오제가 열리지 못했고, 최근에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강릉단오제 개막 2주일을 앞두고 취소 결정이 나면서 지정문화재 행



- |   |   |
|---|---|
| 1 | 1. 6.21~28일(8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생방송 단오TV 스튜디오 |
| 2 | 2. 안목커피거리에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홍보중인 단따라            |
| 3 | 3.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에 참여한 시민                         |

사 중심으로 축소되어 치러진 바 있다. 그리고 5년만인 2020년 2월, 사스(2003), 메르스(2015)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강릉단오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병(疫病)'에 물러서지 않았다. 국내외 수많은 축제들이 코로나19에 백기를 들고 취소했지만 강릉단오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 천년 단오 계승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다.

### 천년 축제, 온라인 무한공간에서 새 역사 쓰다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는 6월21일~28일까지 8일간 무한공간 온라인에서 펼쳐졌다. 단오제를 기다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SNS와 단오TV 중계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참여 행사를 즐기며 천년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온라인을 통해 공간의 경계가 사라진 강릉단오제는 강릉을 넘어 전국으로,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 나가면서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에는 약 2,700세대가 동참해 100.5가마(약 8톤)의 쌀이 모아졌다.

단오제체험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단오제체험팩은 2,400개의 수량이 사전 신청 이틀 만에 동이 났고, 2005년 당시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원조 시비'를 걸었던 중국의 국영 방송사인 CCTV에는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전격 보도되며 글로벌 단오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강릉단오제 유튜브 구독자는 단오 기간 1,400% 이상 증가했고, 홈페이지 유입 수는 약 4만명, 페이지뷰는 10만회를 기록했다. 유튜브 조회는 5만회, SNS 게시물 도달 범위는 10만 명을 넘으면서 소통의 축제를 입증했다. 관노가면극 등 전통연희 공연을 비롯해 70여개 영상이 제작됐고, 조회수는 4만 5천회를 기록했다. 단오 기간 중 실시간 중계된 단오TV와 단오굿 라이브 채널 영상은

누적 조회수 3만회에 이르렀다. 신통대길 10주년을 맞아 각 마을마다 1분 가량의 다큐 길놀이 영상물을 제작해 선보인 '랜선 길놀이'는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하며 추억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신주미 봉정 릴레이, 영산홍 챌린지, 단오놀이패 단따라 활동 등은 이번 온라인 단오제를 통해 단오를 대표하는 기존의 핵심 콘텐츠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단오TV 생중계는 기존의 강릉단오제를 '난장', '야시장' 정도로 이해해 온 젊은 층들에게 다채로운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강릉단오제 바로 알기에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단오굿 라이브의 경우 가톨릭관동대 황루시 명예교수의 해설이 더해지면서 생소하게 느껴져 온 단오굿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나눔의 단오도 이어졌다. 올해는 신주미를 봉정하면 신주 1병은 참여자가 신주교환권으로 받고, 1병은 노인시설에 자동 기부되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단오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단오TV 생중계를 월화거리 전광판, LG헬로비전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강릉단오제위원회는 강릉시민들을 대표하여 강릉의 선별진료소 5곳(강릉시보건소, 강릉아산병원, 강릉의료원, 강릉동인병원, 강릉고려병원)의 의료진에게 약 500병의 신주를 전달하고,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가먹기 운동에 참여하여 지역의 소외계층 300가구에도 수리취떡을 보내 단오의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유튜브 실시간 소통과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400가구의 강릉시민들에게는 '배달의 단오'를 통해 단오주와 수리취떡을 전하며 단오의 정을 나눴다.

강릉단오제는 이렇게 변화하면서 변함없는 축제로, 멈추지 않고 진화·발전하고 있다.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무엇이 달라졌나

글 김은숙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기념부채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구분	기존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봄업	신주미 봉정		신주미 봉정 릴레이	시민 참여 관람 + 영상 시청
			단오놀이패 단따라	
지정 문화제	제례	⇒	관계자 중심 비공개 진행	영상 시청
	단오굿		해설이 있는 단오굿 실황중계	
	관노가면극		전통연희 한마당	
국가 무형문화재	강릉농악,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강릉학산 오독떼기		전통연희 한마당	
	세시풍속 체험 공연	그네, 씨름	⇒	취소
단오난장 / 신주교환		배달의 단오 / 신주교환		
사투리대회		온라인 사투리대회		
창포주 선발대회		온라인 창포주 선발대회		
청소년 단오축제		온라인 청소년 단오축제		
단오소원등 밝히기		단오소원등 밝히기		
단오체험장 프로그램		단오체험팩 나누기		
마을 참여	공연		영산홍 챌린지	영상 시청
	신통대길 길놀이		단오갈래 챌린지	
강릉단오 해설			지역예술인 한마당	영상 시청
			랜선 길놀이	
		⇒	강릉단오제 알쓸신잡	영상 시청



### 봄업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에서 '신주미 봉정'과 '단오놀이패 단따라'는 강릉단오제 봄업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의 신주미 봉정 방식에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새롭게 추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강릉단오제 확장성을 이끌어낼 주요 봄업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오놀이패 단따라'는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홍보를 위해 새롭게 선보인 사업으로 관노가면극 캐릭터 인형+영산홍 댄스+단오제 QR코드 홍보를 담당, 흥이 넘치는 봄업 행사로 이끌었다.

### 지정문화제

강릉단오제의 경수라고 할 수 있는 지정문화제 행사는 관계자만 참석하는 무관중 행사로 비공개로 치러졌다. 이 가운데 단오굿은 해설과 함께 '단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단오굿의 이해를 돕는 새로운 역할을 했다. 또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강릉학산오독떼기,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는 사전 제작하여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고 1분짜리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해 수준 높은 영상콘텐츠를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 세시풍속 체험 공연

단오를 대표하는 그네타기, 씨름, 줄다리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는 아쉽게도 취소되었다. 단오장에서 진행되었던 단오체험은 단오체험패키지(부채, 관노탈, 단오등, 엽서, 스티커)를 신청 배달받아 체험하고, 그 체험모습을 촬영하여 개인SNS에 공유하고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개최로 새롭게 등장한 '영산홍 챌린지'와 '단오갈래 챌린지'는 단오를 소재로 온라인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특히 두드러졌다. 또 쌍방향 시민 소통을 통해 단오주와 수리취떡을 배달하는 '배달의 단오'는 단오난장의 맛을 전하는 수단이었다. 매년 강릉 단오제에서 가장 인기를 모았던 강릉사투리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다채로운 공연은 지역의 젊은 무척부, 무녀/악사들의 공연 영상 제작으로 대체되었다. 단오소원등 밝히기는 온·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해 진행됐다.

### 마을 참여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신통대길 길놀이' 행사는 10주년의 의미를 살려 mbc 다큐 영상 제작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21개 읍면동의 길놀이 장면은 1분 영상으로 만들어져 배포되었으며, 마을 대표들이 단오TV에 출연해 10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강릉단오제 해설

그동안 제작된 영상 가운데 강릉단오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을 골라 찾아보기 쉽게 댓글로 정리, 강릉단오제 공식 유튜브에 모아 홍보했다.

# 신주미 봉정의 진화

글 김은숙 박경란 김만재



2020 신주빚기

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5일 '신주빚기'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신주빚기'는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 국사여성황제, 단오제 기간 동안 제례에 쓰이는 술인 신주를 만드는 행사로 옛 관청이었던 칠사당에서 열린다.

## 신주빚기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빚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1966년 보고된 '강릉단오제 지정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음력 3월20일 신주근양(神酒謹釀)을 시작으로 50여 일에 걸쳐 강릉단오제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91년까지는 음력 3월 22일에 도가집에서 신주를 빚었으나 4월 15일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행사까지 기간이 길어 술이 쉬는 경우가 많아 1922년부터 음력 4월 5일로 조정하고, 행사 장소를 칠사당(七事堂)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신주빚기를 위해 칠사당은 일주일 전에 미리 금줄을 치고 부정할 일을 막는다. 과거에는 강릉부사가 내려준 누룩과 쌀로 술을 빚었다는 고증에 따라 1994년부터 강릉시장이 쌀과 누룩, 술잎을 제공하며 신주미 봉정식을 갖는다.

## 신주미 봉정 시민참여

신주미 봉정은 2000년부터 변화를 맞이했다. 강릉시민들이 신주미 봉정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들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며 3~4kg의 신주미와 함께 소원의 글(소지)을 써서 제출한다. 신주미를 봉정한 시민에게는 신주교환권을 주어, 신주가 다 만들어지면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소원의 글(소지)은 단오제 기간 동안 굿당에 붙여두었다가 축제 마지막 날 소제 때 함께 태워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신주미 봉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주와 신주미는 단오제 기간 동안 각종 제례를 비롯해 수리취떡 만들기, 신주 맛보기 등 체험행사에 사용되어 참여하는 시민들과 공유하게 된다. 시민들이 처음 참여했던 2000년에는 약 1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8가마(1가마 80kg)의 신주미가 모였다. 2002년에는 1,000여명이 참여했고, 2004년에는



- 1
  - 2
  - 3
1. 한마음으로 모여진 신주 봉정미  
2. 전국각지에서 택배로 전해진 신주미  
3. 신주빚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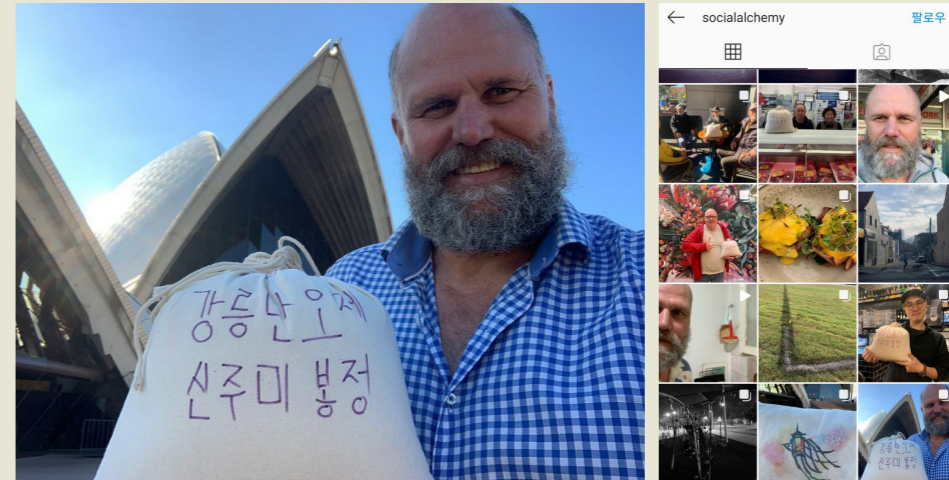
2,200여명이 참여해 100가마가 넘는 신주미가 모아졌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평균 5,800여 세대의 시민들이 참여해 170~180가마 가량의 신주미가 모아지고 있다.

### 2020 온라인 신주미 봉정 릴레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강릉단오제 신주빚기의 신주미 봉정은 어떻게 진행했을까.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온 천년 단오 정신을 계승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망을 담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태졌다.

예년처럼 시민들이 주민센터와 강릉단오제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신주미 봉정 자루를 받아오는 것에 더해 신주미 봉정을 인증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필수 해시태그(#신주미봉정릴레이 #온라인단오 #강릉단오제)를 붙여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이 전개되었다.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릴레이'라는 재미를 추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외 곳곳에서 2,700여 세대가 참여해 100.5가마의 신주미가 모아졌다.



### 호주에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참여한 매트 존스(Matt Johnes)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한창 이어질 무렵 한글로 '신주미 봉정'이라고 반듯하게 쓴 자루를 든 파란 눈의 외국인에 관심이 집중됐다. 주인공은 2015년 강릉단오제와 인연을 맺은 매트 존스(Matt Johnes)씨.

Matt는 호주에서 직접 신주미 봉투를 만들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코로나19로 강릉단오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객을 만난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표시했다.

시드니에 살고 있는 한국인 친구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강릉단오제를 방문해야 한다고 권해서 강릉단오제를 알게 되었다는 Matt는 "축제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2015년 강릉을 방문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단오제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듬해인 "2016년 단오제에 참가해 씨름에서 메달을 받았다"고 추억했다.

관중의 호응이 재미있었던 관노가면극과 단오굿, 특히 "마지막 날 굿당을 장식했던 모든 것을 태우는 '소제'가 너무 인상 깊었다"고 했다.

Matt는 올해에도 축제에 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갈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신주미 봉정 릴레이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싶어 면 가방을 사서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이라고 쓴 뒤 쌀을 담았다. 더 나아가 시드니에 있는 한국 친구들에게 참여 의사를 묻고 24명의 참여자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모은 쌀로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인절미와 막걸리를 만들어 강릉단오제 로고를 레이블로 제작, 붙인 뒤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내년에는 시드니에서 강릉단오제를 홍보하는 문화 행사를 하고 싶다는 Matt는 "무엇보다 강릉단오제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만약 강릉에 다시 갈 수 있다면, 단오제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음악과 춤도 즐기고, 경포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다.

<심층 인터뷰>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기획에서 실행까지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글 박경란



대관령 산신제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기념촬영 2020.6.6

## Q. 온라인 단오제는 어떻게 기획되었나?

정부가 2월 24일 코로나 심각단계를 발표하고, 3월2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강릉단오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내부회의를 거쳐 국외공연 교류, 해설사 양성 교육을 취소했다. 강릉단오제보존회 차원에서는 신주빚기, 대관령 산신제 및 국사성황제를 윤달로 한달 연기가 결정됐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단오제를 준비하면 됐지만 상황 자체가 나아지질 않았다.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축제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수해야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았다. 메르스 때가 소환됐다. 단오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가 메르스가 터지면서 단오제가 취소됐다. 메르스로 인해 그해 단오제가 지정문화재 행사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듯한 섭섭함,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강릉단오제는 강릉사람들에게 1년 중 거쳐야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메르스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단오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비대면이라도 쌍방향 소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Q. 온라인 단오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애정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신주미 봉정 릴레이다. 신주미 봉정은 강릉사람들한테는 익숙하고 특별함이 없다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축제를 위해 쌀을 모은다는 게, 엄청



김문란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장

난 양의 쌀이 모아진다는 게 특이하고 이색적인 모습이었다. 신주미 봉정 기간을 늘리고,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강릉단오제인 만큼 지구촌으로 확장되길 바랐다. 실제로 축제의 시공간이 확장되면서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참여하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내년에도 이어가고 싶다. 영산홍 챌린지는 단오 주제곡인 영산홍가를 대중화하기 위해 지난해 5,000명이 대합창을 진행한데 이어 댄스가 있는 펑키 버전의 음악으로 편곡한 것이다. 내년에는 길놀이를 비롯해 단오장 곳곳에서 플래시 몹으로 즐기고 싶다. 배달의 단오의 경우 나눔의 단오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시민들이 약 3Kg의 신주미를 내면 신주 1병을 단오제 기간에 받고 나머지는 단오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나눔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기존의 도시락 배달을 통한 농가역기 활동을 결합해 배달의 단오가 탄생했다. 내년에도 단오장을 오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배달의 단오로 연결하고자 한다.

### Q. 온라인 단오제를 치루면 혹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가?

올해 신통대길 행사가 10주년을 맞았다. 랜선 길놀이를 기획하며 10주년 영상을 만들면서 동네마다 1분 분량의 영상을 공유하고자 했다. 단오TV에 출연해 짧게 길놀이 준비과정과 에피소드 정도를 나눴는데 주민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집중토크를 진행했다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예술제와 연계해 읍면동 단위 마을축제를 할 수 있는 곳에서 길놀이 디자이너들과의 토크쇼 기회를 갖고 싶다.

### Q. 온라인 단오제로 전환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내가 안다고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했다.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지나온 것들에 대해 다시 알리고 싶었다. 신주미, 영산홍, 감자적 등 단오제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재미있게, 관람이 아닌 체험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하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 Q. 단오TV가 온라인 단오제를 즐기는데 주효했던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하나?

단오TV의 출발은 단오곳에 대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채널이 분화됐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면서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던 프로그램을 단오TV로 모으게 됐고, 그동안 단오제를 통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단오의 가치, 의미, 교육적 효과를 TV를 통해 알아갔다.

### Q. 올해 온라인 단오제의 성과라면 무엇인가?

단오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단오의 가치를 일깨웠다. 그동안 단오제 접근방식의 이유는 각각이었지만 온라인 단오제를 통해 단오의 주요 핵심요소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내년 단오를 기다린다고 했다. 단오제를 외면하고 있던 층을 끌어안은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본래의 단오를 기다리고 사랑했던 어르신들에게는 온라인 단오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LG헬로비전 채널과 월화거리 전광판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라인 단오제의 접근성을 돕고자 했으나 기존 단오의 즐거움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년에는 보다 성대하게 강릉단오제를 치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 Q. 온라인 단오제가 결과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준비할 때의 불안감, 고민은 없었나?

온라인 단오제를 제안했을 때 다들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확신에 찼지만 불안했다. 천년단오의 무게감도 컸다. 그동안 잘 지켜왔는데 망치는 건 아닐까? 단오제를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온라인 단오제가 십시일반 단오 정신을 흐려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년 단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단오가 가지는 역사성, 무게감에 대한 고민이 컸다. 하지만 메르스 때와 같은 상황을 재현하고 싶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두 트랙으로 가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축제, 대규모 행사들이 이제 전환점에 섰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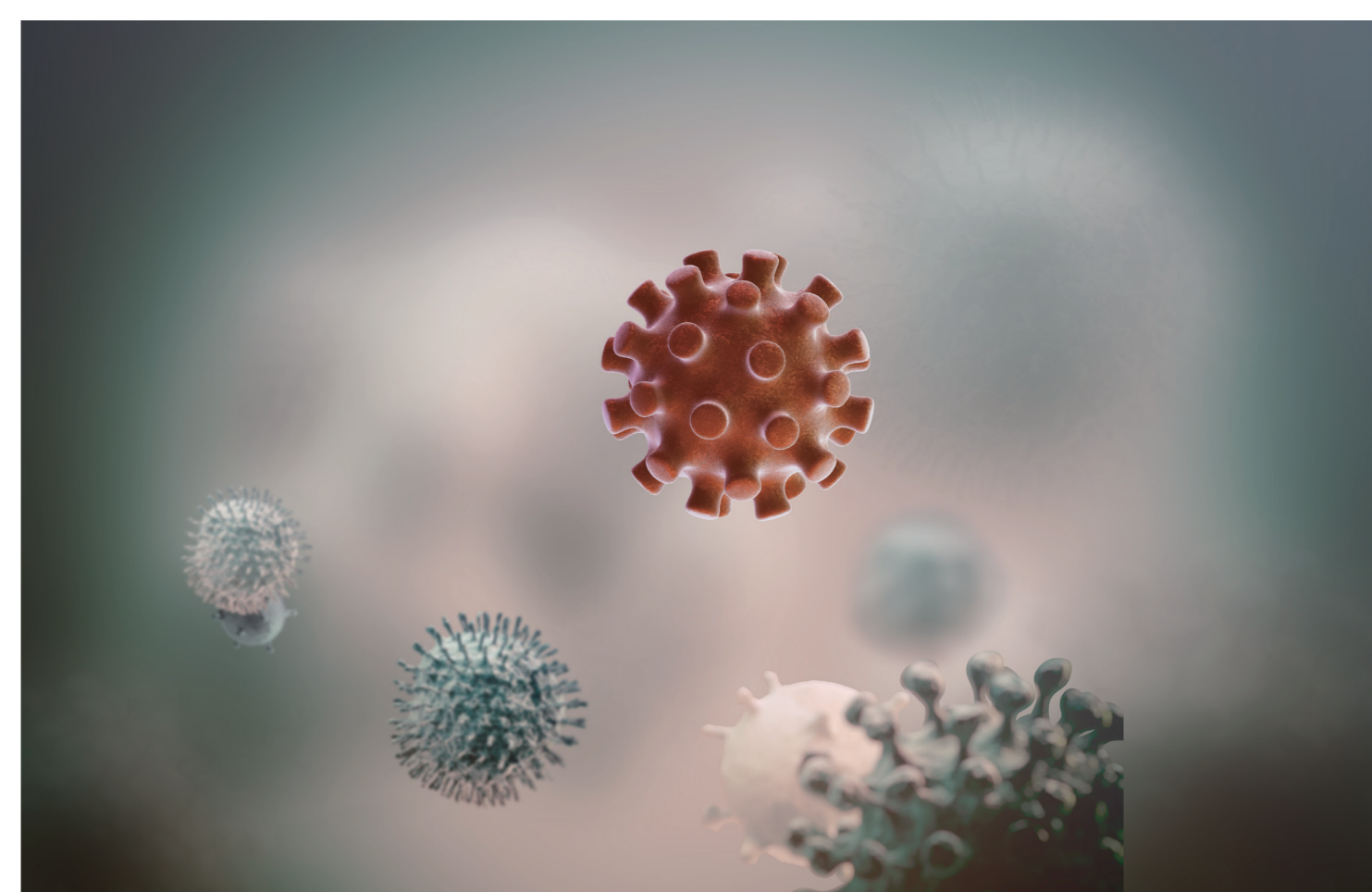
### Q. 온라인 단오제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우리에게는 단오DNA가 있는 것 같다.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런저런 번거로움에도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많은 기관, 단체, 개인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해 단오의 재미를 표현해 줬다. 온라인 단오를 치르려면 영상 제작이 매우 중요했는데 요청 사항 이상으로 열정과 힘을 보내주셔서 독특한 단오제 파트너십을 새삼 실감했다. 특히 단오 해설을 맡아준 황루시 교수님은 단오곳 내내 여러 전문가들을 직접 섭외해 단오곳 라이브의 질을 높여줬다. 끝으로 강릉단오제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잇기위해 열정을 함께 쏟은 우리 직원들과 강릉시청 및 문화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전문가 기고> 팬데믹 시대의 강릉단오제

# ‘감염성 질환과 지속가능한 강릉단오제’

글 전방욱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 사람과 전염병

사람의 고대 DNA 연구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최초로 발병한 시기는 지금까지 예측된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은 최소한 6,000년 전 인간을 감염시켰다. B형간염 바이러스와 페스트균도 5,0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처음 시작되었다. 홍역 바이러스는 기원전 6세기 초에 소에서 인간으로 점프했다. 인간이 천연두에 처음 걸린 시기는 기원후 600년이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염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남아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1980년대 초에 샌프란시스코에 난데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이후 연구를 통해 1959년 벨기에령 콩고에서 나타난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76년 최초로 중앙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에볼라바이러스는 출혈열을 일으키는 여러 종의 신종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다. 출혈열은 고열, 구토, 다량의 출혈, 순환계 장애 등의 여러 증상을 동반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 뇌염을 일으키는 여러 종의 위험한 신종 바이러스도 발견되었다. 한 예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로 1999년 북미 지역에 처음



전방욱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나타난 이후 미국에서 48개의 인접한 주에 전파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5,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했다.

2009년 4월에는 멕시코와 미국 지역에 독감과 유사한 대유행병이 크게 번졌다. 병원체는 계절성 독감을 야기하는 바이러스와 연관된 독감바이러스의 하나라고 밝혀졌다. 이 바이러스는 H1N1으로 명명되었다. 이 바이러스 질환은 빠르게 확산되어 2009년 9월에 이르러 WHO에서는 결국 이 질병을 세계적 대유행병이라고 공표했다. 11월까지 이 질병은 207개 나라로 퍼졌고 600,000명 이상이 감염되어 약 8,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갑자기 나타나거나 또는 의학계에 새로 보고되는 바이러스를 신종바이러스라고 한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현재 지구 전역에 퍼져가고 있다. 세계적 대유행병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CoV)는 인간에게 호흡기 감염을 일으킨 전력을 갖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바이러스인데 구형이나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라틴어로 왕관이나 후광을

뜻하는 코로나에서 유래되었다. 코로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표면에 돌출된 왕관과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리킨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혹은 간단히 줄여서 Sars-CoV-2(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 코로나19(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이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는 지름이 90 나노미터 정도이고 폐렴균의 10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코로나19는 독감과는 다르다. 증상이나 전파 방식이 다르고 감염된 환자는 더 쉽게 사망하며 완전히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에 속한다. 이 신종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일곱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켜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두 종류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되어 상당히 많은 사망자를 낳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라는 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메르스를 발병시켰다. 이들 코로나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SARS-CoV)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인데 약 8,000명의 사람이 감염됐고 그중 774명이 목숨을 잃어 9-11%의 사망률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중증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새로운 코로

나바이러스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가 등장했다. 메르스는 사망률이 사스와 비슷했지만, 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파되는데 비해 메르스는 낙타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동물원성 질병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아라비아 반도로 제한적으로 발병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방역실패로 186명이 확진되고 그 중 3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네 종류의 “계절성” 코로나바이러스는 매년 사람을 흔히 감염시킨다. 사스와 비교하면, 이들 계절성 코로나바이러스는 더 유행성이고, 덜 중증이며, 몸살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모든 몸살 환자의 5-12%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매년 수백만 건의 감염을 일으킨다. 이 계절성 코로나바이러스는 과거 백 년 동안 박쥐 저장고로부터 사람으로 여러 번 넘어온 결과이다. 넘어온 후에 각 감염성 바이러스는 스스로 확립하고 인구집단에 널리 퍼지게 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이 일곱 번째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갑자기 등장해서 세계적 대유행병을 일으켰을까?

### 팬데믹 상황의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유전 정보는 1월 중순에 공개되었다.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는 박쥐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전체와 96%, 천산갑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체와 86%-92% 일치한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자물쇠에 맞는 열쇠와 같이 세포 부위와 맞아야 해서 보통 숙주 선택이 까다롭다. 그러나 아주 드물기는 해도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종으로 옮겨갈 수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가장 가까운 야생 친척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원래 박쥐에서 기원했고 그 다음에는 직접 또는 다른 종을 거쳐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 같다. 하지만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사람에게

로 옮겨왔는지 아직 알 수는 없다. 박쥐의 바이러스는 종종 다른 포유동물을 감염시키고, 그 다음 돌연변이를 하여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 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정확한 감염원을 밝히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래한 중간 숙주를 잡아내는 것은 지금은 급선무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DNA 대신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주 세포 안에서 복제하면서 생기는 틀린 글자를 바로잡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틀린 글자가 더 많이 생긴다. 오자가 몇 개 발생했는지, 또한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최초로 발생했는지 또 어느 곳에서 전염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서열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시기를 추정하는 계통수로 분석해보면 동물원성 감염의 공통조상은 2019년 11월 초반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우한에서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통조상은 2019년 12월 초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우한 바이러스”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곳이 처음 발견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대상을 낙인찍을까봐 더 이상 사람이나 장소, 그리고 동물을 따라 이름을 짓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우한을 중심으로 발병한 것 같지만 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과 홍콩, 싱가포르, 일본, 태국, 그리고 유럽, 북미,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호주를 포함한 주변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중국 후베이성과 광둥성, 베이징에서 최초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 26일 중국 화북성 우한 시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였고,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인 폐렴 환자가 27명이 처음 발생했다.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다. 다음해 1월 9일 중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인했다. 1월 15일 세계보건기구는 “사람 간 전염을 배제 못하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1월 8일 우리나라에서도 첫 의심환자가 발생

했고, 1월 20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1월 23일 중국이 우한시 전역을 봉쇄했고,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3월 10일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선포되는 등 코로나19의 세계적 위험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발생 72일 만에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게 된다.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0여 개국 이상에서 1,000만명의 확진자와 50만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코, 입 또는 눈을 통해 몸으로 들어온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감염된 사람이 말,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서로 가깝게 접촉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 호흡기 비말은 무겁고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공중에서도 몇 시간 생존할 수 있지만 전파는 감염된 사람과 2미터 정도의 거리 안에 있을 때와 같이 접촉을 통해 대부분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말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입이나 코에 내려앉을 수가 있고, 폐로 흡입되어 이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비말은 책상, 카운터, 손잡이와 같은 표면에 내려앉아 남아있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표면에서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 기간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들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표면과 기후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어디서든 표면에 존재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표면이나 물체(감염매개물이라고도 함)의 감염된 표면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가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자주 접촉하는 지역을 소독하라고 권고한다.

바이러스와 세포의 첫 만남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단백질에는 사람의 기도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ACE2와 잘 맞는 부위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돌출물의 구조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바이러스보다 ACE2에 더욱 강력하게 결합하며, 이 점은 사람 간 전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결합이 강하면

감염에 필요한 바이러스의 개수는 적어도 된다.

감염된 세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RNA를 읽고 면역계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복사본을 조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세포의 조립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더 많은 복사본을 형성할 새로운 돌출물과 다른 단백질들을 만든다. 일단 세포가 구조 단백질과 RNA를 만들면, 새로운 바이러스를 복제하기 시작한다. RNA 분자 일부는 캡시드 단백질의 복사본으로 포장된다.

여기에 세 가지 외부 단백질이 풍부한 막이 공급된다. 피막과 막 단백질은 골지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는 이 조립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세포에서 100~1,000개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생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복사본은 조립되어 세포 바깥으로 이동한다. 감염된 각 세포는 결국 파괴되고 죽기 전에 수백만 개의 코로나바이러스 복사본을 방출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근처나 다른 사람의 새로운 세포를 감염시키고 생활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만들어진 RNA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로 포장되지는 않는다. 잉여분은 순환계로 탈출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근의 세포를 감염시키거나 비말 형태로 폐를 떠난다.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는 감염된 환자의 가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특이적 RNA를 선별 증폭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심한 폐렴, 폐부종, 복합 장기 부전 등의 신체적 증상을 일으킨다.

## 코로나19와 강릉단오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22일, 향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사·모임 자제 등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감염 방지를 위해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권고되었다. 이후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졌고 결국, 5월 3일 정부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생활 방역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분위기 가운데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는 대면 활동 대신에 비대면 활동이 강제되었다. 특히 집단 활동은 자율적 타율적으로 통제되거나 금지되었다.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다양화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주말 종교행사(예배·미사·법회 등)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집회를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강릉단오제위원회도 강릉단오제를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70년 전의 6·25전쟁,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행사를 세 번째로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이다.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강릉단오제가 올해 '온라인 단오제'라는 초유의 변신을 시도한 것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축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정동적 힘이 분출, 작동되는 현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유사한 질병의 경우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사람이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러 나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완전히 차단이 어렵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비말이나 접촉 이외에도 공기 전염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밀집된 환경에서 단순

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상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백신이나 특정한 치료제도 아직은 없다. 항체가 형성된 사람도 곧 면역능력을 상실한다는 보고도 있어 희망을 갖기가 아직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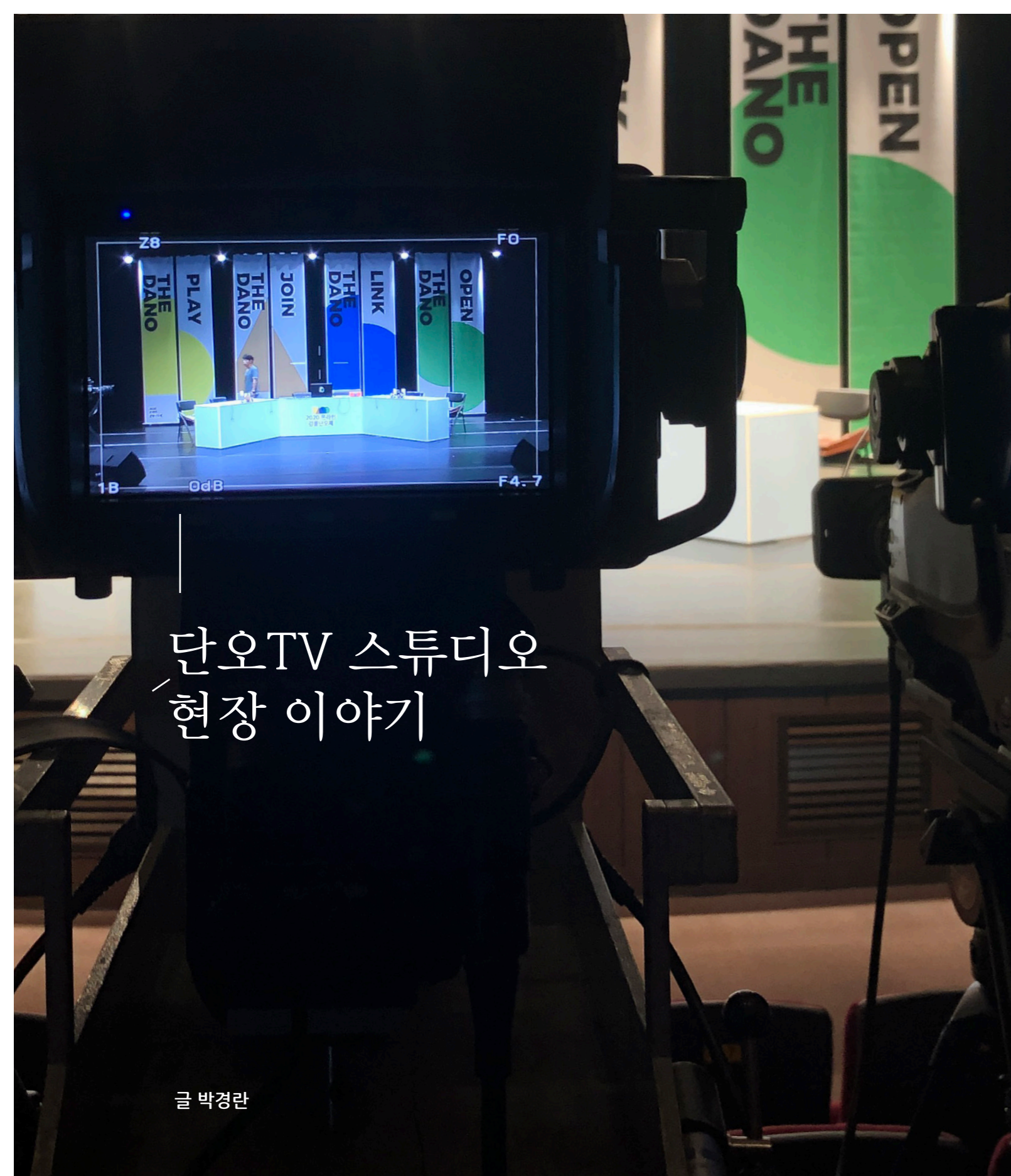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적 위생에 힘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병의 전파를 늦추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감소시킨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의료 수용력 이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환자 집단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갖게 되며 이는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미국 전염병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최소 18개월에서 2년 정도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인간이 야생동물 생태계를 침범하는 데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 전염병은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발병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비상상태가 정상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강릉단오제를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까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단오, 온라인에서 놀다



# 단오TV 스튜디오 현장 이야기

글 박경란

## “재미있는 단오 보고싶니?” “정답은 바로 단오TV.”

2020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강릉 단오제전수교육관에는 특별한 스튜디오가 차려졌다. 강릉단오제 기간인 6월 21일~28일 매일 오후 2시~4시에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된 것. 단오TV는 강릉단오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LG 헬로비전 채널25번, 월화거리 전광판 등을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펼쳐지지 못한 난장, 경축행사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또한 랜선 길놀이를 비롯해 영산홍 챌린지, 시간여행 단오퀴즈, 신주교환 현장 연결, 배달의 단오, 단오굿 실황중계, 단오초대석, 전통연희 한마당, 창포주 품평회, 온라인 사투리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흥에 흠뻑 빠지게 했다.

단오TV의 백미는 역시 김기환, 광명수 두 MC의 재미있는 입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익살스러운 진행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이끌며 온라인 단오제의 재미를 배가시



켰다. 시청자들은 하루 2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강릉단오제의 핵심 요소와 가치, 의미들을 집중하여 들여다봄으로써 단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소통을 통해 전달된 배달의 단오 또한 호평이 이어졌다.

신통대길 길놀이 10년을 되돌아보는 랜선 길놀이는 단오제 기간 동안 매일 2~3곳의 마을 주민대표들이 직접 스튜디오를 방문, 출연해 길놀이를 준비하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다양한 마을 자원들을 소개하며 애항심을 복돋웠다. 특히 각 마을마다 지난 10년간의 신통대길 길놀이 활동상을 약 1분가량의 영상으로 압축, 되돌아보며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가톨릭관동대 황루시 명예교수의 해설이 곁들여진 단오굿 실황중계, 단오초대석을 통해 만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대회 참가 시민들도 변화는 있고 변함은 없는 강릉단오제, 멈추지 않는 강릉단오제의 저력을 엿볼 수 있게 했다.

# 16가지의 즐거움

- 온라인으로 즐기는 강릉단오제

글 김은숙 박경란



## 신주미 봉정 릴레이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이어진 신주미 봉정 릴레이는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렸다. 기존과 같이 쌀을 내는 방식에 더해, 다음 신주미 봉정 참가자 두 명을 지목해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이 추가 되었다. 십시일반 신주미를 내며 정성을 모아 천년을 이어온 단오정신을 계승하고 온라인 강릉단오제에 대한 관심과 붐을 일으키기 위한 것. 이와 함께 기존 단오장에서 체험행사로 나누는 수리취떡, 신주 맛보기를 대신해 '1+1 행사'가 진행됐다. 릴레이에 참가해 신주미를 내면 예년처럼 신주교환권 1장을 단오제 기간 중에 신주로 교환하도록 하고, 1병은 단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과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 등에 자동 기부돼 단오의 나눔을 실천했다. 강릉시장과 시의장부터 시작된 신주미 봉정 릴레이는 강릉문화원, 강릉예총, 강릉농악보존회,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 강릉시 이통장연합회, 강릉지역 4개 대학, 언론사 등 72개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그리고 전국 14개 시도의 43개 시·군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참가자도 있었다. 유명 인사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강릉 출신으로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헤리 선수와 트로트계의 전설인 가수 이자연, 남진, 설운도씨도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동참했다.

- |   |  |
|---|--|
| 1 | 1. 강릉시장, 강릉시의회의장 신주미 봉정                |
| 2 | 2. 제주예총 신주미 봉정                         |
| 3 | 3. 가수 설운도 신주미 봉정                       |
| 4 | 4.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헤리 선수 신주미 봉정 |

## 단오놀이때 단따라 운영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온라인 단오제를 치르면서도 단오의 흥을 복돋기 위해 '단오놀이때 단따라'를 운영했다.

단오놀이때 단따라는 관노가면극 등장인물 등 강릉단오제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구성됐으며,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붐업을 위해 5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강릉 전역을 누비며 단오제 흥을 복돋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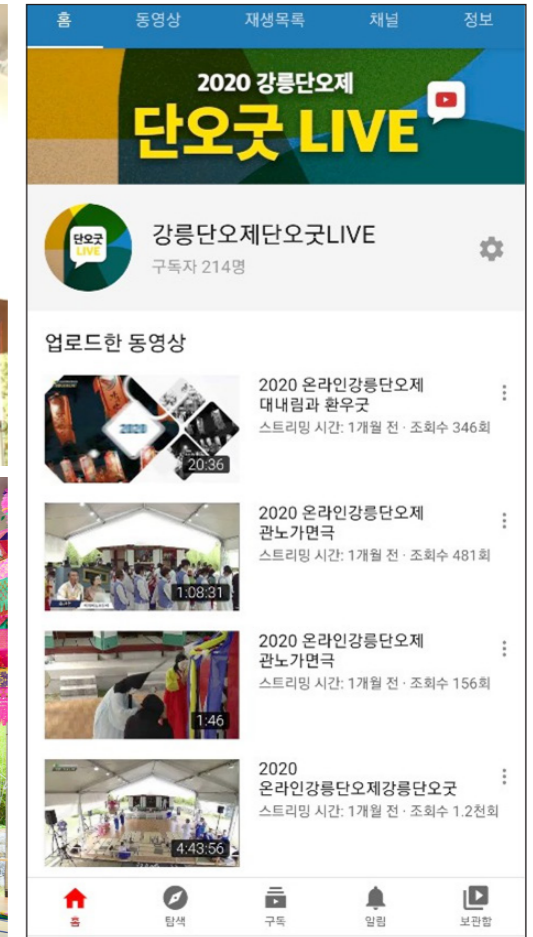
단오제 시작 전 붐업 기간에는 움직이는 단오 포토존을 운영하며, 신주미 봉정 기념 촬영의 배경으로 함께하는가 하면 강릉 시내 및 관광지 등에서도 시민, 관광객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친숙함을 더했다.

### 온라인 단오제 붐업, 단오 DNA를 깨우다

"강릉단오제를 알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지요."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치러지는 동안 단오제의 홍보 및 붐업을 위해 단오놀이때 단따라가 운영됐다. '단따라'는 '단오를 따르라'의 줄임말이자 '단오를 알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 다닌다'는 의미로 관노가면극의 양반과 소매각시, 시시딱딱이와 강자마리 캐릭터 인형과 춤추는 댄스팀, 홍보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단오놀이때 단따라는 신주미 봉정 행사 일주일 전부터 강릉 시내와 관광지 곳곳을 찾아 다니며 온라인 단오제 홍보 및 축제의 흥을 돋우는데 힘썼다. 단오기간 중에는 마차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며 대형 유세차와 함께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옥천오거리, 강릉역, 터미널, 교동택지 등을 찾아 온라인 강릉단오제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낮에는 월화거리, 중앙시장, 안목해변 등 관광지를 다니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흥겨움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온라인 단오제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낸 단오놀이때 단따라는 앞으로 도 강릉단오제의 찾아가는 홍보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에서부터  
1. 오죽한옥마을 2. 강릉역 3. 월화거리



## 단오굿 실태중계\_Live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지정문화재 행사는 6월 23일~28일까지 6일간 강릉 흥제동 대관령 국사여성황사에서 펼쳐졌다.

강릉단오제의 백미인 단오굿은 올해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통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6월 23일 영신제를 시작으로 28일 송신제까지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단오굿은 해설이 곁들여지면서 단오굿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단오굿은 첫날 빈순애 예능보유자의 부정굿을 시작으로 청좌굿, 화회동참굿, 조상굿, 세존굿, 축원굿, 군웅장수굿, 악사들의 중첩이굿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전세계의 평안한 일상을 기원하는 '손님굿'이 열렸다. '손님굿'은 역병(疫病)이 창궐했을 때 종일 치성을 드리는 굿으로 손님마마를 청해 융숭하게 대접해서 보내며 코로나 종식을 기원했다.

## 전통연희 한마당

강릉단오제 동안 단오장을 흥겹게 만들어주던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학산오독떼기, 사천하평담교놀이 공연은 전체 과정과 1분 분량의 편집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즐길 수 있었다. 공연과 잘 어울리는 현장을 배경으로 사전 제작이 이루어졌다.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진 멋진 공연이었다.

제례, 단오굿과 함께 ‘지정문화재’의 하나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관노가면극’. 탈을 쓰고 대사 없이 몸짓, 춤으로만 표현하는 국내 유일의 무언가면극으로, 양반광대,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장자마리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캐릭터들이 악사와 함께 다섯마당으로 펼쳐는 사랑이야기이다. 사랑과 오해, 화해라는 키워드가 조선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다. 약 40분 가량의 전체 영상과 1분 분량의 편집 영상을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오랜 옛날부터 강릉에서는 농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였고, 해마다 단오날이 되면 전체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즐겁게 해주었다. 강릉농악은 대부분 외가락으로 되어 있고 소박한 맛이 특징이며,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되었다. 47분 정도의 전체 영상과 1분 분량의 편집 영상이 제작되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었다. 강릉사천하평담교놀이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로 마을의 단합과 풍년을 기원하며 다리를 사이에 둔 두 마을이 다리를 차지하기 위한 놀이를 표현한 것이다. 팽과 리를 치며 분위기를 돋우고 먼저 다리를 건너기 위한 헛불싸움이 이어지고, 승자가 가려진 후에는 한 해의 액을 떨치는 의미의 다리밟기를 하며 화합을 도모한다. 약 34분 가량의 전체 영상과 1분 분량의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펼쳐졌다.

강원도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강릉학산오독떼기’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속 노동민요로, 모내기부터 수확과 타작에 이르는 과정을 흥겹게 표현하고 있다. 강릉학산오독떼기 보존회에서 참여하여 사전 제작한 영상을 단오기간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1분 분량의 편집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관심을 모았다. 약 37분 가량의 전체 영상과 1분 분량의 편집 영상이 만들어졌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
2.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강릉농악

1

2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 강릉사천하평담고놀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제5호 강릉학산오독떼기



## 지역예술인 한마당

강릉단오제를 축하하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축하공연인 '지역예술인 한마당' 역시 사전에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강릉단오제보존회의 무격부, 단오굿에서 사용되는 신명나는 타악과 무녀의 향연이다. 아름다운 녹음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타악과 무녀의 춤사위는 현장에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잊게할 정도로 훌륭했다.

악사편과 무녀편으로 나누어 각각 약 28분, 약 14분의 전체 영상과 1분짜리 편집 영상을 사전 제작하여 단오제 기간 동안 업로드하였다.

1

2

3

1. 2. 3 (사)강릉단오제보존회 무격부



## 랜선 길놀이(2020 신통대길)

‘신통대길 길놀이’는 ‘영신행차’의 뒤를 이어 강릉시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마을별 특성을 담아 다양한 주제로 펼치는 퍼레이드식 퍼포먼스이다.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서 국사성황신과 국사여성황신의 신위와 신목을 앞세우고 강릉 남대천 단오장에 마련된 굿당으로 모셔가는 영신행차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기획·연출되었다.

21개 읍면동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의상이나 소품도 마련한다.

영신행차의 뒤를 잇는 신통대길 길놀이 행렬은 강릉시 남문동 강릉의료원 앞에서 출발하여 칠사당, 옥천오거리를 거쳐 금성로 성내동 택시부광장을 지나 남산교에 마련된 레드카펫존에서 본격적으로 퍼포먼스를 펼친뒤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신통대길 길놀이’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올해는 온라인 버전의 ‘랜선 길놀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신통대길 길놀이’를 기념하여, 각 마을별 길놀이를 다큐형식으로 사전제작하여 단오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또한 21개 읍면동의 마을별 자랑과 콘텐츠를 1분 분량으로 요약하여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각 마을별 자랑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았다.

- 주문진읍 ‘강릉을 대표하는 어촌!’, ‘수산물 천국이자, 오징어의 고장’
- 성산면 ‘햇불을 들고 신을 맞이하던 영신훈불놀이’, ‘더불어 기우제 풍습 용물달기를 재연’
- 왕산면 ‘옛날 화전민의 터전!’,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밭 안반데기’
- 구정면 ‘강릉단오제 주신 범일국사 탄생지’,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 강동면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마을’, ‘정동진 바다부채길 등 굽직한 명소’
- 옥계면 ‘강릉남부의 중심도시!’, ‘수로부인 행차, 온 마을이 하나되는 순간!’
- 사천면 ‘넓은 평야와 바다가 어우러진 마을’, ‘풍농과 풍어, 사천하평담교놀이의 전통’
- 연곡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마을’, ‘농촌 산촌 어촌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곳’
- 홍제동 ‘강릉단오제 주신과 정씨처녀의 전설이 깃든 곳’, ‘국사여성황사와 경방댁 등 자부심이 남다르다!’
- 중앙동 ‘강릉의 중앙, 강릉의 중심’, ‘과거를 넘어 현재를 이야기하다!’
- 옥천동 ‘오랜 세월 강릉의 중심지!’, ‘천년 은행나무를 지키며 주민화합’
- 교1동 ‘젊음과 다양함의 마을’, ‘강릉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한 길놀이!’
- 교2동 ‘강릉지역 정신문화의 산실!’, ‘강릉향교를 간직한 유서깊은 마을’
- 포남1동 ‘역사와 전통, 행정의 중심지’, ‘도심권 형성의 거점마을’
- 포남2동 ‘대관령에서 화부산이 이어지는 마을!’, ‘역사와 전통성을 이어가는 마을’
- 경포동 ‘경포대, 오죽헌, 선교장 등 전통문화재의 마을’, ‘해변, 호수 등 풍류와 운치가 넘치는 곳!’
- 초당동 ‘강릉 진포배기와 허균 허난설헌의 고장’, ‘3.1만세운동 등 민족의 열이 흐르는 곳’
- 송정동 ‘송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배경!’, ‘송정해변과 안목커피거리 등 명소를 품은 마을’
- 내곡동 ‘시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한 효부의 전설’, ‘경로효친의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
- 강남동 ‘설화와 역사가 흐르는 마을!’, ‘초대형 잉어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성덕동 ‘축구를 빼고 우리 마을을 이야기하지 마라’. ‘축구 본가다운 화려한 축구 퍼포먼스’

\* 길놀이 입장순서로 표기



## 강릉단오제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 데 많은 신기한 잡학지식, '강릉단오제 알쓸신잡'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강릉단오제를 소개하고 설명했던 기존의 방송영상을 모아 강릉단오제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였다.

MBC강원영동에서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방영됐던 '김순식, 왕순식 그리고 강릉단오'(<시간여행 강원 시즌 1 15회> 2015년 6월 20일 방영)에서는 신라말 김순식이 고려초 왕순식으로 되는 역사적 과정속에서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짚어보는, 즉 역사와 신화가 어우러진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28일에 방영된 <시간여행 강원 시즌 3 2회> '천년의 몸짓, 강릉 단오굿'에서는 세계의 무당에 대한 소개와 강릉 단오굿의 의미를 소개하였다.

문화유산채널에서 2018년 8월 27일에 방영한 '신과 인간의 축제, 대관령 강릉단오제'에서는 대관령에서 국사성황신을 모시고 제레이자 축제를 벌이는 강릉단오제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BBS불교방송은 2019년 6월 23일 <BBS TV 자신감 26회>에서는 '단오와 대관령을 지키는 범일국사'라는 주제로 수릿날, 천중절 등 단오의 다른 이름들을 소개하고, 단오와 범일국사와의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 단오소원등 밝히기

단오소원등은 영신행차때 시민들이 들고 따르다가 단오장에 내걸고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체험 행사다. 올해 단오등은 새롭게 디자인되어 단오공원에 2,000여개가 내걸렸다.

온라인 단오제 기간 내내 단오공원 단오등이 환한 불을 밝히면서 단오를 알렸다. 단오공원에 걸린 단오등에는 시민들의 소원지가 붙여지고, 소제행사때 태우며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했다.



## 영산홍 챌린지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 형식으로 참가자들이 강릉단오제의 주제곡인 영산홍가에 맞춰 춤을 따라하고 개인 SNS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단오제를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영산홍 챌린지'는 기존의 영산홍가를 1분10초 분량의 펑키음악으로 편곡, 안무를 제작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챌린지 참여는 편곡된 영산홍가와 함께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을 개인 SNS에 #영산홍챌린지 #온라인단오 #강릉단오제 해쉬태그와 함께 단오제 기간 동안 게재하면 좋아요 수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푸짐한 상품이 수여되었다.

'영산홍가'는 음력 4월 15일 대관령 국사성황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강릉 시민들이 햇불을 들고 환영하는 모습이 마치 활짝 핀 영산홍 꽃 같다 하여 만들어진 노래이다.

영산홍 챌린지는 영산홍가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해 펼친 영산홍 대합창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된 프로젝트로 시민들 간의 댄스 배틀로 이어지며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흥을 복돋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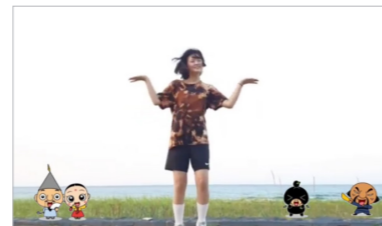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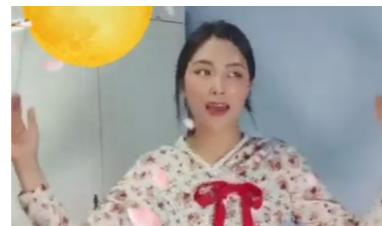
1등 / 조안나(페이스북) 조안나네 대가족



2등 / delevil\_k96(인스타그램) 고성남매



2등 / calebkang1 (인스타그램) 링컨스쿨



- 1
- 2
- 3
- 4
- 5

1. seoyeong8682(인스타그램)
2. sim\_\_simgang(인스타그램)
3. x2z6x (인스타그램)
4. onsaemiro\_kindergarte (인스타그램)
5. baggyeongran1201(인스타그램)

## 영산홍챌린지 수상자

순위	SNS 아이디	팀명	상품
1	조안나(페이스북)	조안나네 대가족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8GB
2	delevil_k96(인스타그램)	고성남매	에어팟 프로
	calebkang1 (인스타그램)	링컨스쿨	에어팟 프로
3	x2z6x (인스타그램)	유튜버 크리	10만원 상품권
	baggyeongran1201(인스타그램)	하평길 이모들	10만원 상품권
	onsaemiro_kindergarte (인스타그램)	온새미로어린이집	10만원 상품권
	seoyeong8682(인스타그램)	강릉농악보존회	10만원 상품권
	sim__simgang(인스타그램)	여고생 심강	10만원 상품권

## 인터뷰

### 영산홍가 편곡자 김다함 안무가 최미건

#### 새롭게 탄생한 '영산홍가', '영산홍 챌린지'로 단오노래 확산

강릉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가 신나는 댄스 음악으로 재탄생됐다.

올해 새롭게 편곡된 '영산홍가'는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영 밴드의 김다함(30)씨가 편곡을, 클론댄스 최미건(42) 원장이 안무를 담당했다.

강릉에 정착한지 5년이 된 김씨는 이번 영산홍가 편곡을 계기로 강릉과 단오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김씨는 "원곡의 선율이 아름다운 곡이라 댄스와 빠른 비트로 바꾸는 것이 어색하고 방향잡기가 어려웠다"며 "다양한 세대들이 낯설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접근했기에, 생각보다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편곡을 마치고 반신반의했지만 춤과 결합했을 때 가사와 곡, 안무가 잘 결합된 것 같았다."며 "현대적인 스타일의 곡으로 꾸준히 잘 불러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무가 최미건 원장은 강릉단오제하면 난장과 청소년 댄스 경연 정도 떠올릴 만큼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최원장은 "가사에 맞춰 안무가 만들어지는데 단오하면 떠오르는 널뛰기, 그네, 길놀이, 영산홍 꽃에 대해 생각하며 흥을 돋우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비트에 몸을 맡기면 절로 흥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곡을 즐길 수 있다"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최원장은 또 "시민들이 올리는 챌린지 영상을 통해 각색된 춤 동작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편곡자 김다함



안무가 최미건

##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

올해로 제27회째를 맞은 강릉사투리대회도 온라인에서 펼쳐졌다.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원일보가 함께한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는 강릉단오의 추억, 기억에 남는 인생이야기 등을 강릉사투리로 영상에 담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2020강릉사투리대회 #온라인단오강릉사투리 #강릉단오제사투리대회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올린 후 이메일로 동영상과 이름, 전화번호를 보내면 참가 신청 완료. 어린 시절 큰어머니와 함께 단오장 구경을 다녀온 이야기, 자신을 좋아했던 동네오빠 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단오구경을 못한 아쉬움 등이 70대 어르신들의 구수한 사투리로 전해져 재미와 정겨움을 더했다.

- 대상 : 조이재(77)
- 금상 : 권정자(78)
- 은상 : 광기옥(77)
- 동상 : 정연옥(78) / 김종무(56) 오금자(68)
- 인기상 : 장원석(35) 오영훈(41) 최인식(41) / 김혜숙(76) 김희자(77) 문춘희(75) 이경옥(83)
- 장례상 : 김성숙(76) / 권영준(78) 어재옥(87) / 박정녀(80) / 홍준표(80) / 강태권, 이옥림부부 / 최동규(78) / 우용근(57)



제27회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 **조이재**(77 강릉시 흥제동)



제27회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 **권정자**(78 강릉시 출제동)

대상 : 조이재(77) 금상 : 권정자(78)  
은상 : 광기옥(77) 동상 : 정연옥(78) / 김종무(56) 오금자(68)



제27회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 **광기옥**(77.원곡면 유동리)



제27회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 **정연옥**(78.강릉시 출제동)



제27회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 **풍수대 김늘이, 김종무**(56.포남2동) 오금자(68.관동2동)

## 단오체험팩 나누기

강릉단오제 기간 다양한 세시풍속을 즐길 수 있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단오체험 행사가 온라인 단오제에서는 '단오체험팩'으로 탄생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단오체험팩 2,000개를 시민들에게 선착순 무료로 나눠준 결과 하루만에 1,500개의 신청이 접수됐다. 행복한 강릉맘 카페 회원들에게 나눠준 500개도 금새 품절됐다. 단오체험팩은 단오체험 대표 프로그램인 단오부채, 컬러링 엽서, 관노탈, 단오소원등, 단오캐릭터 스티커를 하나의 키트로 구성해 만들었으며, 참가자들은 단오체험팩 신청 서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유튜브 구독 인증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단오체험팩을 즐긴 뒤 인증사진 및 영상을 SNS로 올려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됐다.

## 단오신주 교환

신주미 봉정에 참여하고 받은 신주교환권을 강릉단오제 기간인 6월 21일~28일까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앞에 설치된 신주교환처 텐트에서 '단오신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교환한 단오신주를 가족과 함께 맛보며 강릉단오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신주미 봉정시 1병은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강릉 시민들의 단오정신을 이어가며 강릉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강릉의 선별진료소(강릉아산병원, 강릉의료원, 고려병원, 동인병원, 강릉시보건소)에 찾아가 단오신주 500병을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료진들은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도 있었다.



## 창포주 선발대회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원도민일보사는 매년 강릉단오제를 맞아 '대한민국 단오 창포주 선발대회'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축제 현장에서 우리 전통술의 맥을 되살리고, 가장 한국적인 축제의 흥과 멋을 고조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강릉은 예로부터 5대 '명주'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좋은 술이 있는 고장으로 대회를 통해 전통주의 전승,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온라인 단오제로 치러진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80여명의 전통주 전승자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단오절기의 계절약초인 '석창포(石蒼浦)'를 활용해 술을 담그는 대회로 술의 부재료인 석창포를 주최측에서 미리 배송해주고 참가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막걸리를 빚어 출품한다.

올해 대회 전문가 심사는 6월 12일 왕산면 수을향에서 진행됐으며, 6월 22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 열린 '단오TV'라이브 방송을 통해 품평회가 진행되었다.

- 대상 : 강원도지사 · 강원도민일보사장 공동상 : 이동규
- 금상 : 강원도의회의장 상 : 장연희
- 은상 : 강릉시장 상 : 김재식
- 동상 : 강릉단오제위원회위원장 상 : 김주연
- 장려상 : 농협강릉시지부장 상 : 김민지, 김석일
- 장려상 : 강릉농협조합장 상 : 이동규, 신상민
- 특별상 : 강원도민일보 사장상 : 이승욱, 박인순



## 단오갈래 챌린지

‘단오갈래 챌린지’는 ‘실제의 나는 집콕중이지만, 사진 속의 나는 단오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발한 발상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단오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래도 단오장에 가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존의 강릉단오제 사진에 본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합성된 사진으로라도 단오장에 가는 방식이다.

### <참여방법>

- ① 강릉단오제 배경 사진에 본인의 사진을 합성한다.  
(강릉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 SNS를 활용하여 사진 합성법을 사전 홍보)
- ② 필수 해시태그 3개(#단오갈래챌린지 #온라인단오 #강릉단오제)를 작성하고,
- ③ 개인 SNS에 업로드 한다.

참여자들의 재기발랄한 총 72개 작품이 업로드되었다. 단오장 배경에 재미있는 얼굴표정을 합성한 ‘hanryangpark’가 1등으로 선정되어 상품으로 에어팟프로를, 2등은 귀여운 어린이 얼굴을 곁두는 무당 사진에 합성한 ‘soul\_mommy’가 상품권 15만원권, 3등은 ‘hoseong0810’이 상품권 10만원권을 수상했다.

### 단오갈래챌린지 수상자

순위	SNS 아이디	상품
1	hanryangpark	에어팟 프로
2	soul_mommy	15만원 상품권
3	hoseong0810	10만원 상품권

1등  
hanryangpark



2등  
soul\_mommy



3등  
hoseong0810



## 배달의 단오

강릉단오제를 유튜브 라이브로 즐기며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한 참가자들에게 단오 나눔의 정신으로 수리취떡과 단오주를 배달해준 프로그램. 단오TV와의 실시간 소통으로 당첨된 참가자들이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면 배달의 단오팀이 각 가정으로 수리취떡과 단오주를 직접 배달하며 온라인 단오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수상자 단체사진  
▶ 온라인 청소년 단오축제 D·Y·F  
쑥주머니 만들기 컬러믹스 관노가면극만들기 / 단오골든벨



## 온라인 청소년 단오축제

2014년부터 강릉단오제 기간 중 주말을 이용해 단오 속 청소년 축제로 치러진 '청소년 단오축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2020년 온라인 청소년 단오축제 D.Y.F(Dano Youth Festival)'는 청소년들이 집에서 단오와 관련된 활동을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릉단오제를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이 각자 집에서 체험을 통해 강릉단오제를 알아보는 '단오 방구석 오리엔테이션', 강릉단오제를 공부해 온라인으로 퀴즈대결을 벌여 퀴즈왕을 선발하는 '단오 온라인 골든벨', 강릉단오제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유스트롯' 등 청소년들의 단오제에 대한 관심 유도,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상에서 펼쳐졌다.

###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시상명단

구분	이름	소속	금액	비고
대상	서기원	속초고등학교	500,000원	
최우수상	강민구	명륜고등학교	300,000원	
최우수상	신지혜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300,000원	
우수상	김주원	성산초등학교	200,000원	
우수상	박성준	연곡초등학교	200,000원	
인기상	임지수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100,000원	
아차상	최소망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50,000원	강원상품권
아차상	이예은	해람중학교	50,000원	강원상품권
아차상	권나윤/김수빈	강릉여자고등학교	50,000원	강원상품권
아차상	이규림/이두리	강릉여자고등학교	50,000원	강원상품권

# SNS상에서 언급된 강릉단오제를 분석하다

글 정수연 김만재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나타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매년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릉단오제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강릉단오제에서는 행사의 홍보와 진행, 소통을 위해 SNS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 SNS의 게시물 개수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운영한 공식 홈페이지는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에서 제한적인 경향이 있고, 페이스북의 경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이 중복적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하고 SNS에 게재된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튜브에는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64개(80.0%), 강원일보와 기타 방송사에서 14개(20.0%)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반면 인스타그램에는 총 390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었는데,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직접 등록한 글은 115개(29.5%), 다른 계정에 있는 글을 복사한 리그램은 275개(7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개수 (기간 2020년 1월1일~7월3일)

구분	작성자		합계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위원회 이외	
유튜브	64 (80.0%)	16 (20.0%)	80 (100.0%)
인스타그램	115 (29.5%)	275 (70.5%)	390 (100.0%)

### SNS 조회수 Top 5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물은 “신과 인간의 축제, 대관령 강릉단오제”였다. 그런데 이 영상물은 2018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계속 합산된 누적 조회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영상물들과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제외한다면, 단오제위원회에서 제작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CF”의 조회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원일보에서 게재한 제27회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의 대상 수여자에 관한 영상물이었다.

반면,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조회수가 단일 영상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진이라든지 사진과 동영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회수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을 염두에 두고 조회수를 본다면 단오제위원회의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CF를 전격 공개합니다”를 위시하여 영산홍 안무 영상물이 1, 2위를 기록하였고, 영산홍 챌린지 참여자들의 영상 두 편 또한 Top 5에 등장하였다.

〈표 II-2〉유튜브 게시물 조회수 Top 5

제목	작성자	조회수
신과 인간의 축제, 대관령 강릉단오제	문화유산채널	7,615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CF	단오제위원회	4,072
제27회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조이제	강원일보	3,827
단오TV LIVE-6월 21일	단오제위원회	3,042
영산홍 챌린지 안무영상	단오제위원회	2,534

〈표 II-3〉인스타그램 게시물 조회수 Top 5

제목	작성자	조회수
2020온라인강릉단오제 CF를 전격 공개합니다	단오제위원회	448
안무를 강릉단오제 캐릭터들도 함께 했어요	단오제위원회	348
하나들 하나들 박자 맞춰가며	eojjussi	299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x2z6x	29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단오제위원회	281

※동영상 게시물만 조회 수 확인 가능

## SNS 좋아요 Top 5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영상물은 첫 날 진행된 단오TV LIVE로 107건 이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CF가 23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4〉유튜브 게시물 좋아요 Top 5

제목	작성자	조회수
단오TV LIVE- 6월 21일	단오제위원회	107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CF	단오제위원회	97
단오TV LIVE- 6월 23일	단오제위원회	60
신과 인간의 축제, 대관령 강릉단오제	문화유산채널	54
단오TV LIVE- 6월 22일	단오제위원회	50

〈표 II-5〉인스타그램 게시물 좋아요 Top 5

제목	작성자	조회수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CF를 전격 공개합니다	단오제위원회	230
첨부사진 (내용 : 온라인 단오제 개최 안내)	단오제위원회	111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얼굴! 포스터4종	단오제위원회	99
첨부사진 (내용 : 감사인사, 배달의 단오 신청이벤트)	단오제위원회	80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에 보내주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단오제위원회	79

## 인스타그램 들여다보기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영상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유튜브에 비해서 리그램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작성한 영상물 비율이 높은 인스타그램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게시물을 ‘2020온라인강릉단오제’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재분류하면,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작성한 게시물 중에는 신주미(40.0%)와 온라인 단오 행사 안내(33.9%)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신주미 봉정릴레이를 진행하면서 릴레이에 참여한 중요 참가자들을 소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인들이 작성한 리그램 게시물은 단오 체험팩(36.0%), 신주미(20.0%), 단오갈래챌린지(16.0%), 영산홍챌린지(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6〉프로그램별 인스타그램 게시물

	단오 체험팩	영산홍 챌린지	단오갈래 챌린지	신주미	배달의 단오	온라인 단오 행사안내	기타	합계
위원회	7 (6.1)	9 (7.8)	2 (1.7)	46 (40.0)	7 (6.1)	39 (33.9)	5 (4.3)	115 (100.0)
리그램	99 (36.0)	34 (12.4)	44 (16.0)	55 (20.0)	19 (6.9)	8 (2.9)	16 (5.8)	275 (100.0)
소계	106 (27.2)	43 (11.0)	46 (11.8)	101 (25.9)	26 (6.7)	47 (12.1)	21 (5.4)	390 (100.0)

## 인스타그램 워드 클라우드

인스타그램에서 작성된 제목과 댓글을 모두 포함하여 텍스트마이닝 한 후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 결과, '온라인단오, 단오, 신주미, 챌린지'와 같은 단어들이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였다.



〈그림 11-1〉인스타그램 워드 클라우드

## 행복한 강릉맘 카페에 나타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올해 (사)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 맘카페로 유명한 행복한 강릉맘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행복한 강릉맘 측에서도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별도게시판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행복한 강릉맘 카페에 올라온 게시 글을 강릉단오제 프로그램별로 분류한 결과, 카페회원들은 체험팩(69.1%)과 관련된 글을 가장 많이 올렸고 그 다음은 배달의 단오(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프로그램별 행복한 강릉맘 카페 게시물

		단오 체험팩	영산홍 챌린지	단오갈래 챌린지	신주미	배달의 단오	온라인 단오 행사안내	기타	합계
강 릉 맘 카 페	위원회	4 (22.2)	1 (5.6)	0 (0.0)	2 (11.1)	1 (5.6)	8 (44.4)	2 (11.1)	18 (100.0)
	리그램	76 (69.1)	0 (0.0)	0 (0.0)	2 (1.8)	20 (18.2)	1 (0.9)	11 (10.0)	110 (100.0)
	소계	80 (62.5)	1 (0.8)	0 (0.0)	4 (3.1)	21 (16.4)	9 (7.0)	13 (10.2)	128 (100.0)

## 행복한 강릉맘 카페의 인기 글 Top 5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작성하여 '행복한 강릉맘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면, Top 5가 모두 이벤트에 관한 내용이었고, 카페 회원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보면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MOU 체결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 후기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행복한 강릉맘 카페에서 작성된 글들을 보면, 댓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인스타그램과 비교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수가 가장 높았던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CF를 전격 공개합니다'를 제외하고는(댓글 수 210개), 나머지 Top 5 글들의 댓글 수는 1개~6개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행복한 강릉맘 카페의 Top 5 게시글에는 20개~242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좋아요' 보다 댓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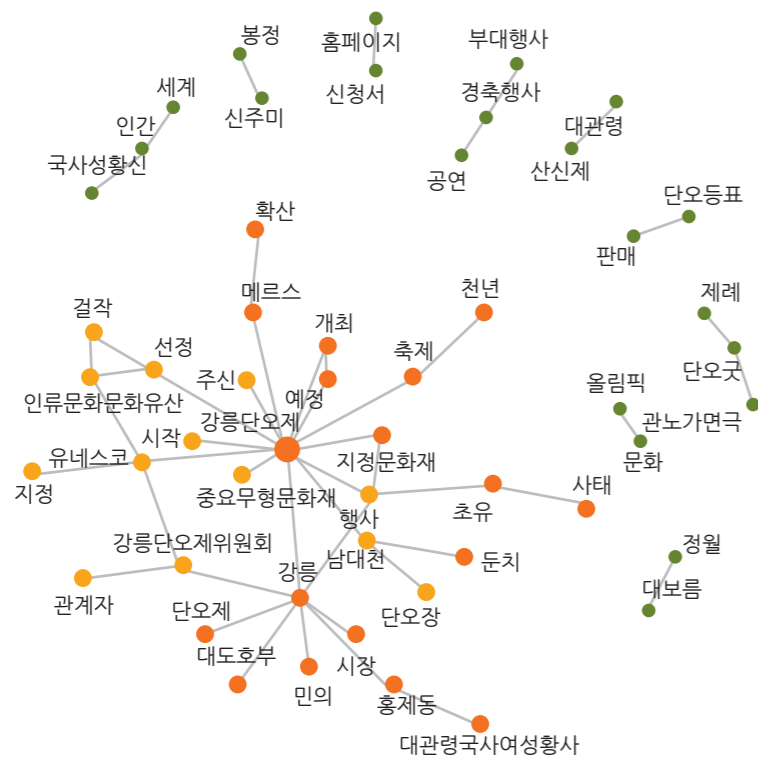
〈표 11-8〉행복한 강릉맘 카페 게시물 Top 5: 강릉단오제위원회 작성

제목	조회수	좋아요	댓글수
온라인강릉단오제 강릉맘 이벤트 진행합니다.(500명)	3,741	33	155
강릉맘이벤트, 드디어 오늘 온라인단오가 개막합니다	1,728	30	242
단오체험팩 관련 공지 드립니다	1,452	16	29
강릉맘이벤트, 당신의 고마움 강릉단오제가 전해드립니다	1,452	18	195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챌린지 3개 완성하시면 한정판 부채를 보내드립니다	1,014	9	20

〈표 11-9〉행복한 강릉맘 카페 게시물 Top 5: 카페 회원 작성

제목	조회수	좋아요	댓글수
행복한 강릉맘x강릉단오제 MOU 체결 (매니저 작성 글)	1,716	20	25
온라인 단오 보고 게시쥬 (단오TV mc만남 인증)	1,533	2	29
죤전에 뉴스에 (단오체험팩 인증 동영상 뉴스)	1,248	6	23
단오문화관 다녀왔어요 (단오문화관 방문 인증 및 응원)	1,042	4	20
*또 당첨*이틀 남았어요 받아가세요 (단오TV 이벤트 당첨 인증 및 시청 독려)	974	7	45





<그림 II-4> 2015년 언론 기사 사회 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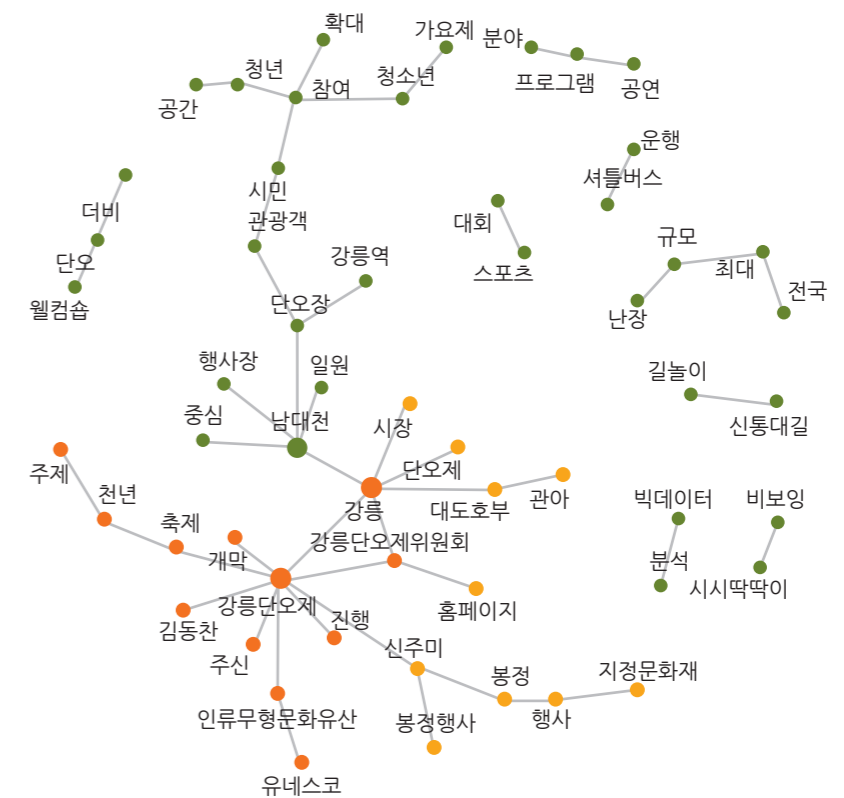
### 2019년 강릉단오제 언론기사 분석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던 2019년 강릉단오제에서는 강릉단오제, 강릉, 단오, 단오제, 축제, 단오장, 참여, 행사, 시민, 공연, 강릉단오제위원회 등 강릉단오제와 연관된 전형적인 단어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강릉-서울간 KTX가 개통되면서 월화거리와 강릉역이 각각 23위와 26위로 등장하였다.



<그림 II-5> 2019년 언론 기사 워드 클라우드

2019년 언론 기사의 사회연결망 분석 그림을 보면,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강릉, 대도호부, 단오제, 시장과 같은 단어가 각각 연결되어 있고, 강릉단오제위원회-홈페이지도 밀접하게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주미-봉정-행사-지정문화재와 축제-천년-주제는 각각의 다른 관심 축을 보여주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 진행, 주신, 김동찬, 개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강릉단오제를 수식하는 주요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 남대천을 중심으로는 일원, 행사장, 중심과 같은 단어가 링크되어 있고, 남대천에서 갈래를 이룬 단오장은 강릉역, 관광객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교통편의 등장에 따른 환경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심 단어들과의 연결성이 약하여 가장 자리에 따로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셔틀버스-운영, 웰컴숍-단오-더비, 빅데이터-분석, 비보잉-시시딱딱이와 같이 2019년에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새로 시도한 내용들이 언론기사에서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6> 2019년 언론 기사 사회 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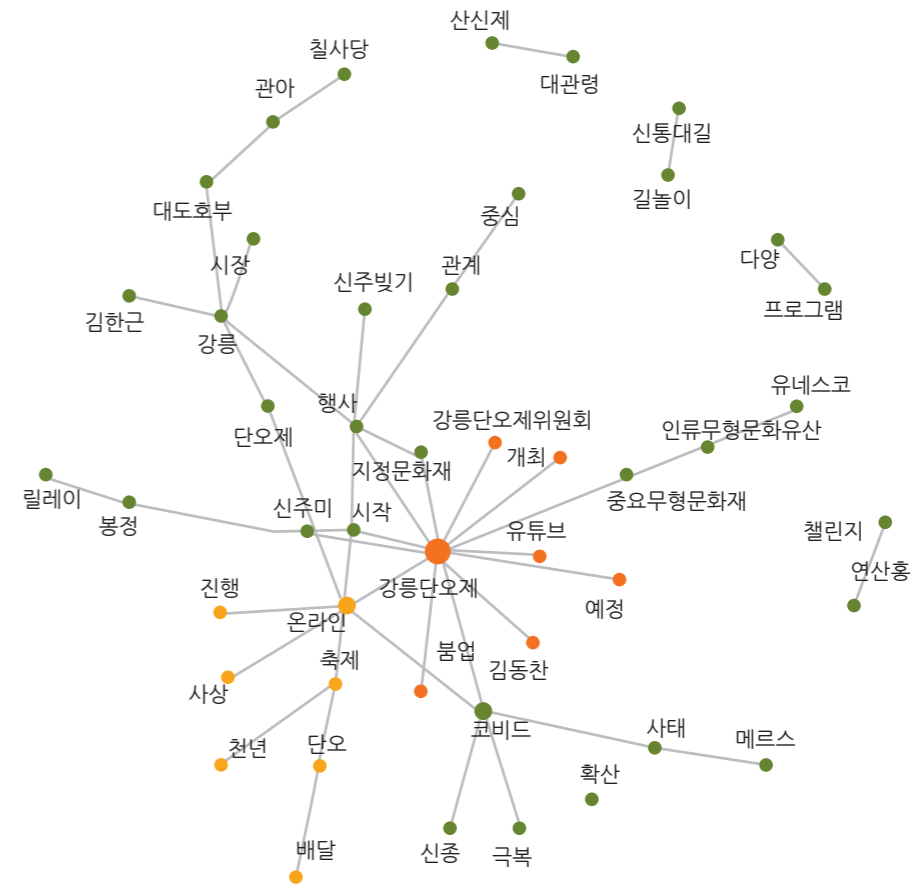
## 2020년 강릉단오제 언론기사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보면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코비드, 강릉, 행사, 단오제, 단오, 신주미, 축제, 시민, 봉정, 릴레이, 지정문화재 등이 언론 기사에서 등장한 빈도가 높았는데, 특히 온라인과 코비드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여 2020년 강릉단오제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영상, 유튜브와 같은 단어도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각각 66번, 59번 언급되면서 17위, 20위를 기록하였고 올해 다양한 챌린지들이 시도됨에 따라 챌린지 또한 55번 노출되면서 25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II-7> 2020년 언론 기사 워드 클라우드

2020년의 사회연결망 분석에 따르면,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축에는 단오-배달, 진행 등이 연결되어 있고, 코비드에서 확산된 링크를 보면, 사태-메르스, 확산, 신중, 극복과 같은 단어가 서로 흩어져 있는 상태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강릉단오제에서 파생된 또 다른 링크에는 지정문화재, 행사, 신주빚기, 관계 등이 있고,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가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예정, 분업, 유튜브, 김동찬, 강릉단오제위원회, 개최 등의 단어는 서로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강릉단오제와 링크되어 있다. 또한 신주미-봉정-릴레이 라인과 중심축과는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영산홍-챌린지가 눈에 띈다.



<그림 II-8> 2020년 언론 기사 사회 연결망 분석



단오, 온라인으로 모으다



# 신과 인간의 온라인 만남

글 박경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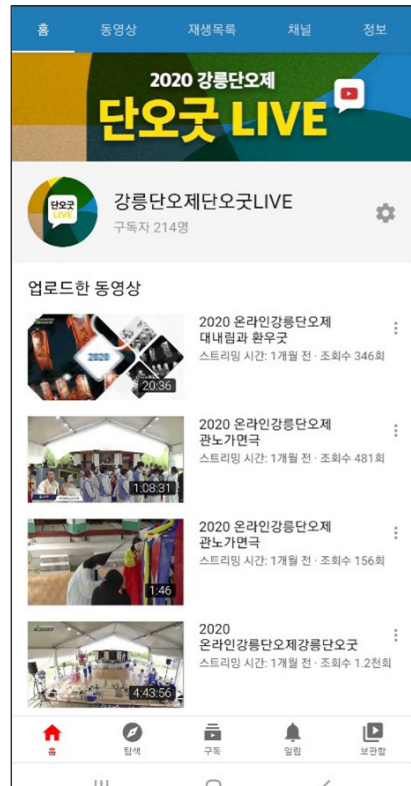
## 해설이 있는 단오굿 LIVE

“코로나야 물러가라~ 멀리 멀리~ 저 멀리 물러가라~~”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천년 단오의 핵심인 단오굿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19로 남대천 단오장에서 단오제를 치를 수 없게 되면서 국사여성황사에 제단과 굿당이 마련돼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 등의 지정문화재 행사들이 펼쳐졌다.

단오굿은 6월23일 저녁 신이 오는 문을 활짝 여는 문굿을 시작으로 24일은 부정굿, 청좌굿, 하회동참굿, 조상굿, 세존굿, 중잡이굿, 25일은 군웅장수굿, 산신굿, 손님굿, 축원굿, 성주굿, 26일은 심청굿, 지신굿, 천왕굿, 지탈굿, 축원굿, 27일은 제면굿, 축원굿, 세존굿, 6월28일 용왕굿, 칠성굿, 축원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그리고 신을 환송하는 환우굿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관객이 없는 굿으로 치러졌지만 그 어느해 보다도 전통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됐다. 이번 강릉단오굿의 하이라이트는 단오날 펼쳐진 '손님굿'. 박금천 전수교육조교의 굿으로 진행된 '손님굿'은 역병(疫病)이 창궐했을 때 치성을 드리는 곳이다. 몸에 붙은 병을 '손님'으로 지칭한 것으로 흥



역, 천연두 신이기도 하다. 온라인 단오제를 치르게 되면서 올해는 손님마마를 청해 융숭하게 대접해 보내며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했다.

단오굿은 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기원하는 행위로 평소에는 손님굿을 단오제 축제 기간 뒷부분에 배치한다. 그러나 올해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단오날 손님굿을 배치해 치성을 드렸다. 특히 손님굿은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지만 동해안에서 행해지는 손님굿의 경우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손님'이라는 질병이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관련돼 있다고 인식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 신을 대접하는 굿이라 흥미를 더했다.

더욱이 올해는 온라인으로 단오굿을 관람하게 되면서 단오굿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톨릭관동대 황루시 명예교수의 해설이 더해져 호응을 얻었다. 황교수는 하루 5~6시간에 걸쳐 펼쳐지는 굿에 대해 친절한 해설은 물론 민속 관련 전공학자와 단오굿 전수자 등을 초빙해 굿은 물론 굿당에 설치된 소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릉단오굿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단오굿이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되면서 "단오굿으로 코로나 물리쳐주세요." "해설이 있으니 이해도 쉽고 재미있다." "굿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무가가 구수하고 참 좋습니다." "해마다 엄마의 단오는 굿당에서 시작해서 굿당에서 끝나는데요. 올해는 티비로 보고 계시네요. 내년에는 단오터에서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집들마다 축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이 나도 온라인 병행해 주세요." 등 댓글 반응도 뜨거웠다.

내년에는 남대천 단오장에서 펼쳐지는 단오굿을 보고 싶다는 바람도 이어졌다.

이번 단오굿에는 30대 전후반의 젊은 무녀와 악사들이 대거 등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세습무로 명맥을 이어온 단오굿은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전승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학습무'로 불리는 제도교육 출신의 굿 전승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타악을 공부하다 무속음악에 심취해 단오굿을 공부하면서 여자는 무녀, 남자는 악사로 전승교육을 받고 있어 기량이 매우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굿은 노래와 춤, 악기, 연희적, 연극적 요소를 고루 갖춘 종합예술 분야로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매우 관심이 높다.

강릉단오제의 핵심인 단오굿을 지키며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학습무'들이 열어갈 새로운 굿의 세계, 계승 활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인터뷰 1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강릉단오제보존회 단오굿 김운석(36) 이수자는 굿판 경력 21년차의 베테랑이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김 이수자는 초등학교 5학년 강릉단오제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한 것이 단오제와 인연이 됐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굿 장단을 배우기 시작했다.

단오굿에서는 여자 무당이 소리와 춤을 담당하고, 남자 무당은 굿 반주를 담당하는 악사다. 김 이수자는 단오제 기간에는 굿당에서 악사를 맡고 있지만 평소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공연 등을 통해 강릉단오굿의 콘텐츠를 알리고, 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이수자는 "굿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종교,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단오굿은 춤과 소리, 연희적, 예술적 가치가 다양한 전통예술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강릉단오굿 전승자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가 명맥을 이어오는데도 남다른 애정을 표시했다. 김 이수자는 올해 단오제가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 "정말 강릉단오제는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다"며 "전통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에 전통의 고유성에 대한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해야겠다"는 책무를 느낀다고 했다.

단오굿은 세습무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단오제와 같은 전통문화 행사를 제외하고는 옛날처럼 굿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굿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타악을 배우고 무속음악에 관심을 갖고 굿판에 들어오는 이른바 '학습무'들이 늘고 있다. 김 이수자도 뛰어난 기량이 눈에 띄면서 굿을 배운 '학습무'다.

김 이수자는 "굿당에 오신 분들이 신명나게 장구치는 모습을 보고 신내림을 받은 줄 알고 점집이 어디냐고 묻기도 한다"며 "단오굿을 무대화하고 좀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관객 없이 굿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강릉의 평화, 안녕을 위해 신위를 즐겁게 해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지만 역시 굿의 매력은 현장성이다"고 말했다.



김운석  
강릉단오제보존회 단오굿 이수자



## 단오등, 오방천 휘날리며 신과 인간을 잇다

단오를 맞아 시민 각 가정의 소원을 담아 단오 축제장을 밝히던 '단오등'이 올해 새롭게 선보였다. 단오굿의 초롱등을 모티브로 제작된 단오등은 오방천이 휘날리는 모양으로 외곽 디자인을 형상화하였고, '가장 기쁜날 단오'라는 글씨가 새겨졌다. 또한 단오굿의 초롱등은 축제를 맞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신이 돌아갈 때 어두운 길을 밝혀준다는 의미도 있어 신과 인간의 만남을 상징하기도 한다.

단오등 아래는 장식술이 달린 소원지를 달게 되어있다. 강릉시민들은 소원지에 가족의 건강과 안녕 등 소망을 적어 음력 5월 3일 영신행차 때 행렬을 따르다 단오장에 다다랐을 때 내걸고 축제기간 내내 단오장의 밤을 밝힌다. 그리고 신이 돌아가는 단오제 마지막 날 모두 소제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단오등은 단오행사장에 내거는 행사등과 단오 체험용 두 가지로 제작됐다. '단오 행사등'은 높이 40cm에 가로세로 18cm 크기로 영신행차 때 시민들이 들고 따르다 단오장에 내거는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단오로 진행되면서 단오제 기간 단오공원 일원에 2,000여 개의 단오 소원등이 선착순으로 배포돼 내걸렸다.

'단오 체험등'은 높이 18cm에 가로세로 9cm로 크기는 조금 작지만 종이접기 식으로 형태를 만든 후 장식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아래 소원지를 붙일 수 있도록 제작돼 단오체험팩을 통해 2,400개가 선착순으로 배포됐다. 단오체험팩으로 새로운 단오등을 접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단오소원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단오등은 지난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강릉단오제 단오등 제작 리빙랩'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11년 만에 새로운 단오등 디자인을 선보였다는데도 의미가 있었다.



### 시민들의 소망, 단오등으로 신과 만나길

“단오등이 신과 소원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연결고리가 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단오등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최용주 자작나무 대표는 강릉단오제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강릉단오제만의 스토리를 담는데 중점을 뒀다.

사실 기존의 단오등은 청사초롱 틀에 단오 이미지만 입혀 활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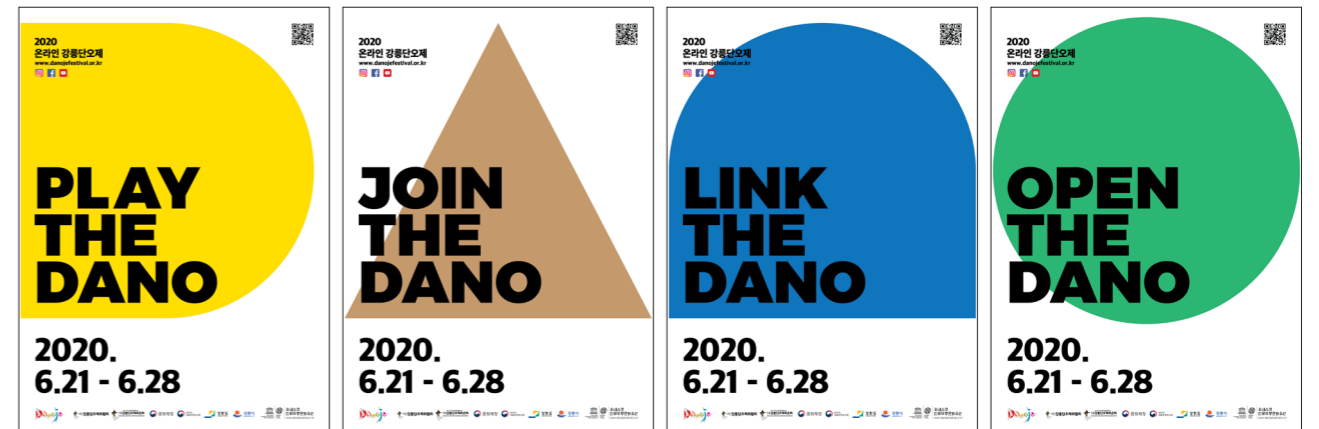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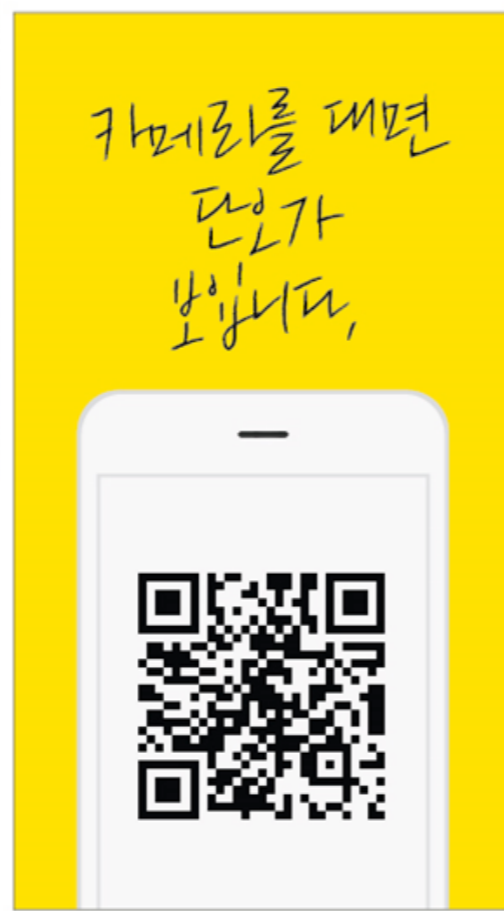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 된 단오등은 단오굿당의 초롱등을 모티브로 했다. 초롱등에 오방색 천을 그려 넣어 단오등 자체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도록 한 것이다. 초롱등이 신이 가는 길을 밝히는 의미라면, 단오등은 신과 인간의 연결고리인 것이다.

최 대표는 “단오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다”며 “단오등에 시민 개개인들이 소망과 염원을 담고, 등을 통해 신과의 만남이 이뤄져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뤄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용주  
자작나무 대표

# QR코드 찍으면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보인다



## QR코드 참 쉽네, 포스터 디자인 스토리

사상 처음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펼쳐지면서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어르신 등 정보화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취약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로 축제를 홍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과 QR코드만 있으면 영상이든 글이든 다양한 홍보물에 바로 연결되는 QR코드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이때문에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 강릉단오제 포스터, 대형현수막, 신문광고 및 행사전단지에는 모든 홍보물에 QR코드를 넣었다.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바로 인식해 강릉단오제 유튜브 공식 채널로 연결되어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만나볼 수 있게 했다.

여기에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명함을 제작해 노인복지대학, 시내버스 정류장, 터미널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배포하는 한편, 21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QR코드 사용법을 알리는 등 온라인 강릉단오제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광고 영상에 명주동 할머니들이 광고 모델로 출연해 QR코드 사용법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다.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알리는 포스터도 신선했다.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키워드는 'PLAY' 'JOIN' 'LINK' 'OPEN'. '단오를 즐기며, 같이 참여하고, 서로 연결되어 천년 축제를 시작하다'는 의미로 연결됐다. 홍보 포스터의 그래픽 모티브는 단오제의 핵심 단어인 DANO(단오)를 심볼화하여 그래픽으로 활용하고, 천년을 이어온 단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의 의미로 표현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을 적용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을 뜻하는 심볼에 메인 비주얼을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게 했다.

단오제 홍보 포스터 제작을 맡은 넥스트 먼데이 이찬샘 대표는 "기존의 단오제 홍보 포스터를 고민하다가 온라인 단오제로 전환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좀더 전달력이 높은 방안을 고민했다"며 "평소 '단오제는 모여서 즐긴다'는 생각 때문에 PLAY THE DANO를 떠올렸고, 연결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있고, 재미있는 작업이었다고도 했다.



단오, 온라인으로 새롭게 열다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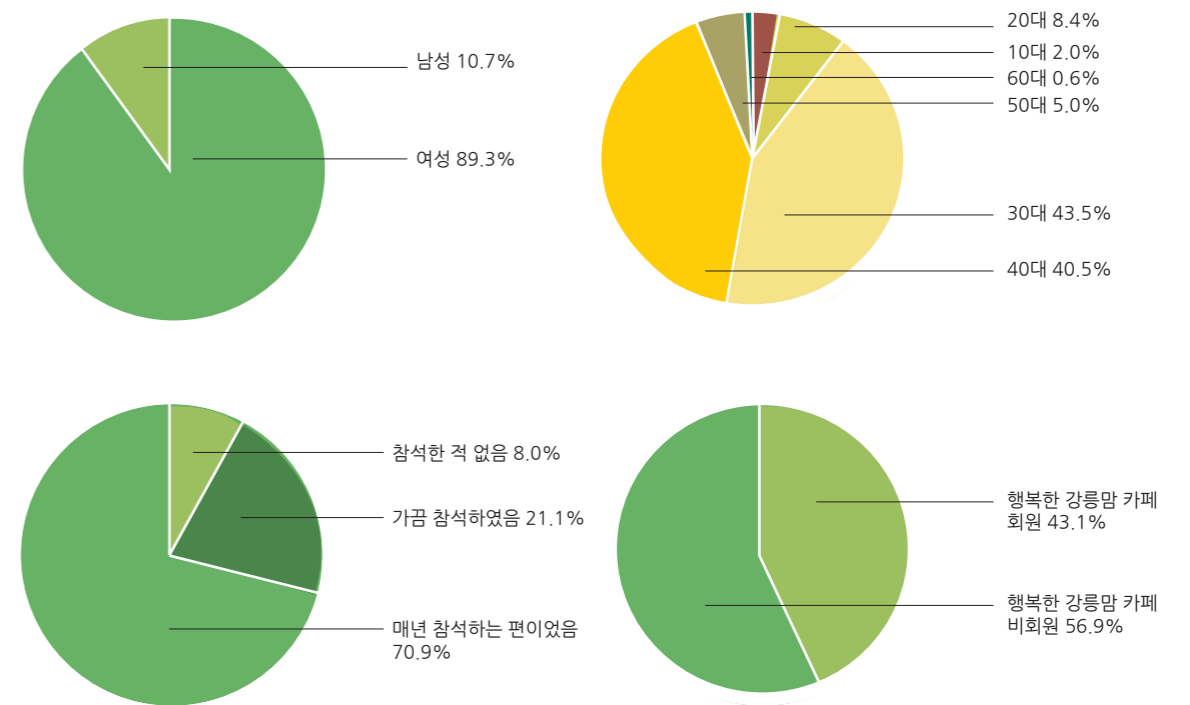
글 김은숙 김만재 정수연

## 조사목적 및 방법

코로나19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들의 의견이 궁금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강릉단오제를 처음 알게 된 방법과 행사 정보를 어떻게 찾았는지, 각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했고, 만족도는 어떠한지,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서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되길 희망하는지, 단오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강릉단오제가 종료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고, 299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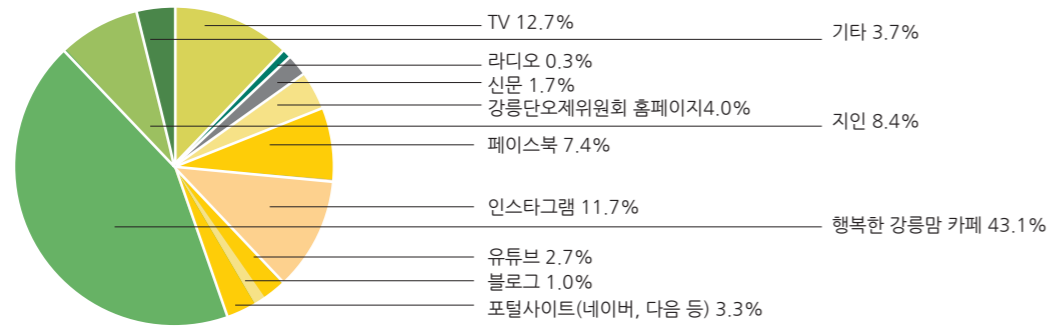
응답자의 약 90.0%는 여성이었는데, '행복한 강릉맘 카페' 회원이 43.1%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홍보를 위해 '행복한 강릉맘 카페'와 MOU를 체결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 43.5%, 40대 40.5%로, 3040이 전체 응답자의 약 84%를 차지했다. 매년 강릉단오제에 참여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0.9%로 높게 나타났고,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8.0%로 나타났다.



<그림 IV-1> 응답자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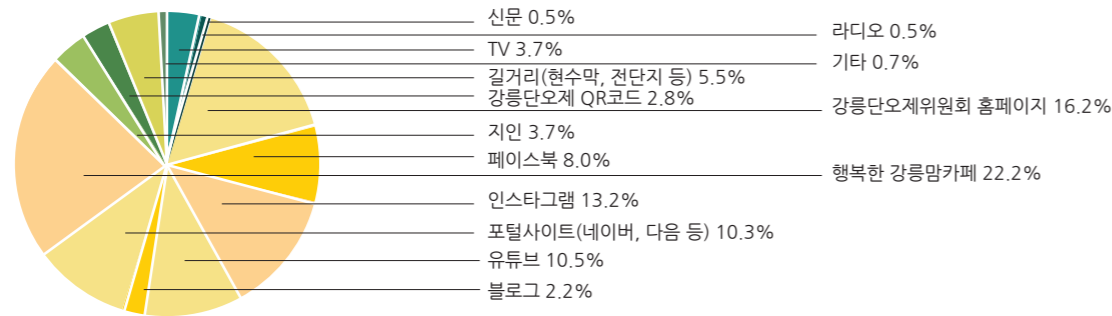
## 강릉단오제 개최 소식 및 행사 정보 알아본 방법 - 행복한 강릉맘 카페

올해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알게 된 방법은 MOU를 맺었던 '행복한 강릉맘 카페'가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스타그램 11.7%, 페이스북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올해 강릉단오제 온라인 개최 소식을 처음 알게 된 방법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행사 일정과 내용 역시 '행복한 강릉맘 카페'를 이용한 비중이 2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릉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 16.2%, '인스타그램'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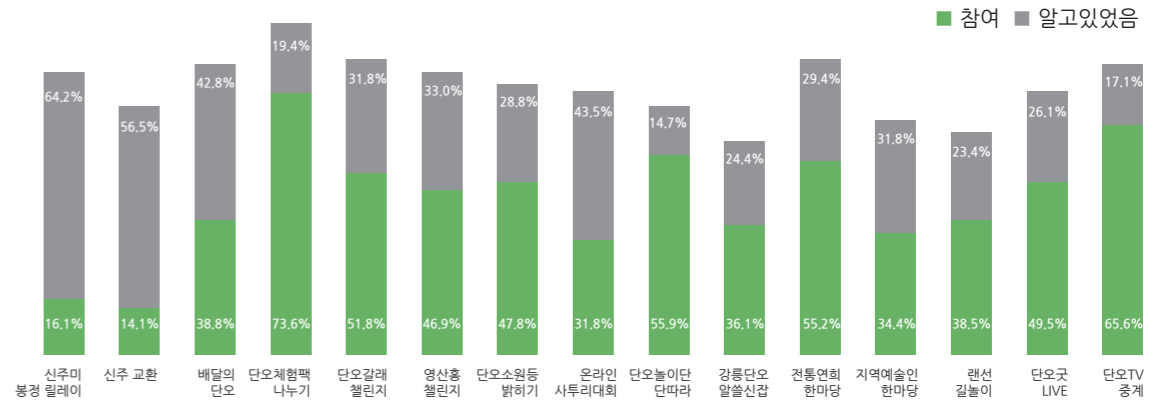


〈그림 IV-3〉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행사 정보 찾아본 방법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준비하면서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특별히 마련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홈페이지'(16.2%), '강릉단오제 QR코드'(2.8%), '길거리'(5.5%) 홍보물을 이용한 비율도 24.5%로 나타났다. TV, 신문, 라디오 등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인터넷 기반 SNS의 이용은 향후, 강릉단오제의 온라인 홍보 확대 및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등 강릉단오제의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 - 단오체험팩 나누기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단오체험팩 나누기' 73.6%, '단오TV중계' 65.6%, '단오놀이단 단따라' 5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프로그램마다 참여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별 참여정도는 아래의 그림 하단의 표와 같다.



프로그램	참여 정도	프로그램	참여 정도	프로그램	참여 정도
신주미 봉정 릴레이	신주미 봉정 릴레이 참여	영산홍 챌린지	SNS 업로드 영상 시청	전통연희 한마당	영상 시청
신주 교환	교환 교환권 소지	단오소원등 밝히기	소원 적음 소원등 붐	지역예술인 한마당	영상 시청
배달의 단오	배달 신청	온라인 사투리대회	영상 제출 타인 영상 시청	랜선 길놀이	영상 시청
단오체험팩 나누기	SNS 업로드 신청	단오놀이단 단따라	길거리 또는 온라인에서 붐	단오굿 LIVE	영상 시청
단오갈래 챌린지	단오갈래 챌린지	강릉단오 알쓸신잡	영상 시청	단오TV 중계	영상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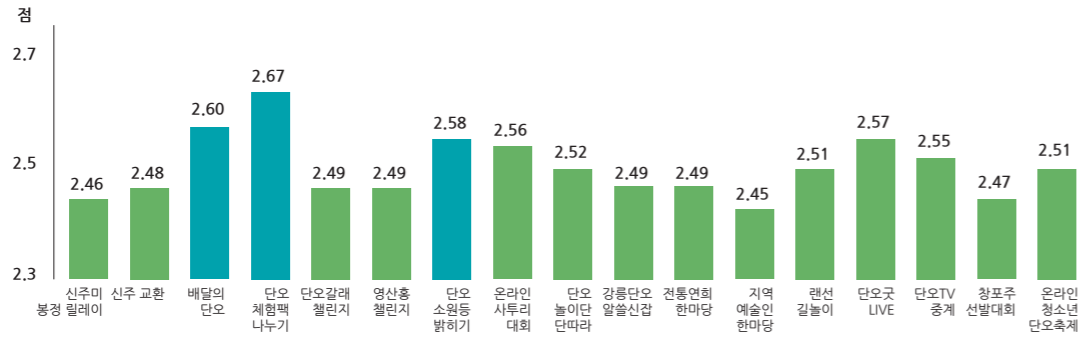
〈그림 IV-4〉 프로그램 참여 정도

##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 단오체험팩 나누기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단오체험팩 나누기'(2.67점), '배달의 단오'(2.60점), '단오소원등 밝히기'(2.5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3점 만점). '단오굿 LIVE' (2.57점), '온라인 사투리대회'(2.56점), '단오TV 중계'(2.55점)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더위에 힘들게 즐서서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이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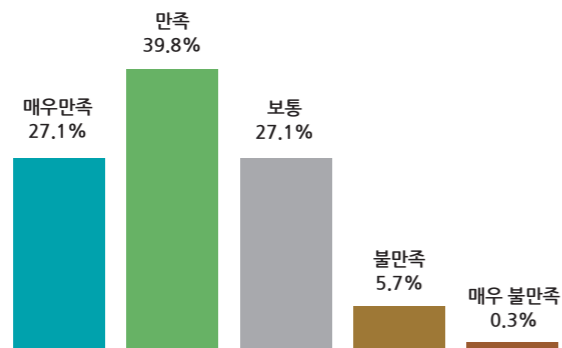


<그림 IV-5>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3점 만점)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전반적 만족도 - 긍정 66.9% 대 부정 6.0%

그렇다면,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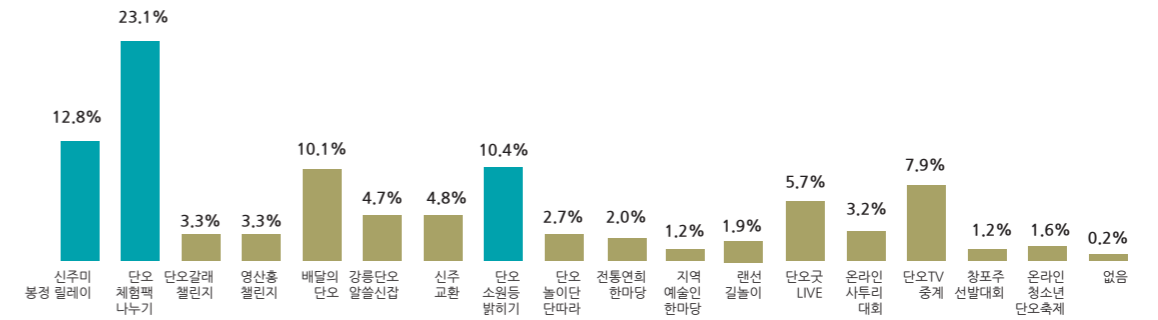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이 66.9%로 그렇지 않은 비율(6.0%)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단오제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개최라는 참신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로 단오제가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온라인 단오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 구성이 탄탄했고', '먹고 즐기지만 했던 단오를 온라인을 통해 제대로 알 수 있었다' 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어르신 등 일부 연령층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홍보 부족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온라인 단오제가 좋은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내년에는 부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었다.



<그림 IV-6>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전반적 만족도

## 강릉단오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온라인 프로그램-단오체험팩 나누기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행사 중, 강릉단오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프로그램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 질문한 결과, '단오체험팩 나누기'(23.1%), '신주미 봉정 릴레이'(12.8%), '단오소원등 밝히기'(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단오기간이 되면 가정과 지역사회의평안을 기원하며 단오신주를 빚고, 단오소원등을 밝히고, 단오장에서 부채도 만들던 체험을 온라인에서나마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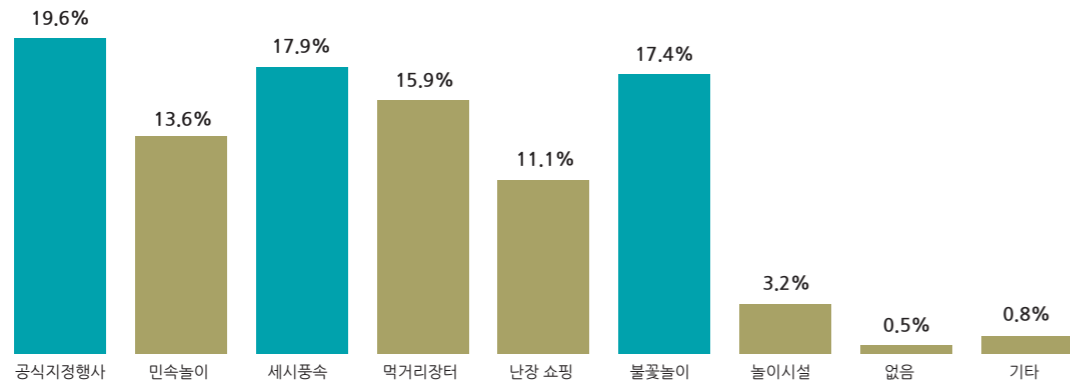
<그림 IV-7> 단오의 의미를 잘 나타낸 프로그램

## 온라인 개최로 인해 아쉬운 점-단오제 공식 지정행사 참여 불가능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도록 문항을 구성해서 질문한 결과, '단오제 공식 지정행사(신주빚기, 제사, 굿, 영신행차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지 못해서'가 19.6%로 가장 높았고, '세시풍속 체험(창포물에 머리감기, 수리취떡 만들어 먹기, 단오부채 만들기, 단오부적 만들기, 관노가면극 탈 그리기 등)을 직접 하지 못해서'(17.9%), '불꽃놀이를 보지 못해서'(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오제 공식 지정행사'는 관계자만 참여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다보니, 예년같은 현장감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세시풍속 체험'이나 '불꽃놀이'는 그야말로 단오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기는 행사이기에, '단오체험팩 나누기', '단오갈래 챌린지', '배달의 단오' 등과 같은 아이디어로 보완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컸던 것 같다.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나마 개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년에는 부디 오프라인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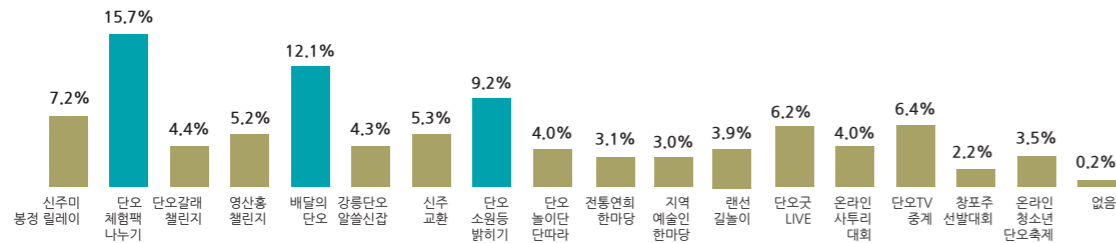
<그림 IV-8>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

### 향후 함께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 단오체험팩 나누기

앞으로 강릉단오제가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개최될 때, 함께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단오체험팩 나누기'(15.7%)가 가장 비중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달의 단오'(12.1%), '단오소원등 밝히기'(9.2%)의 순이었다.

'단오체험팩 나누기'는 가장 많이 참여했고,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 강릉단오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베스트 프로그램이었고, '단오소원등 밝히기'는 만족도가 높고, 강릉단오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프로그램, '배달의 단오'는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향후 오프라인으로 강릉단오제를 진행할 때 온라인으로 병행 운영되면 더 호평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많은 응답자들이 현장에서 강릉단오를 즐기지 못한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강릉단오제가 이어질 수 있었음에 안도했고,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에 박수를 보냈다.



<그림 IV-9> 향후 함께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 기타 의견: 긍정적 의견은 63.4%, 부정적 의견은 18%에 불과

설문지 마지막에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개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299명 응답자 중에서 무려 53.5%에 해당하는 160명이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해 주었다. 한 답변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종합해 보면 총 194건의 의견이 개진된 셈이었다.

이를 답변의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면, 긍정적 의견은 63.4%에 해당하는 123건인 반면, 부정적 의견은 18.0%에 달하는 35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기대 27건(13.9%), 요청 9건(4.6%)이었다. 긍정적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온라인 단오 칭찬으로서 총 61건이었는데, 이 중에는 온라인 단오를 통해 오히려 단오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단오제 = 야시장 느낌이 컸었는데, 온라인 단오제에 참여하면서 단오 행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그 동안 관심 없었던 단오굿과 길놀이 행사가 앞으로는 다르게 보일 것 같고, 저에게는 단순히 쉬어가는 의미의 단오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맛있는 축제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즐겼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지금이라도 단오제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어 다행이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단오제를 병행하여 더 즐겁고 뜻깊은 행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

그 외에도 수고 21건, 감사 15건 있었고, 단일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단오 TV 칭찬이 12건, 단오 체험팩 칭찬이 6건으로 눈에 띄었다. 이에 반해, 부정적 의견 중에서는 홍보에 대한 지적이 17건으로 가장 높았고, 어르신들의 소외(3건)를 비롯하여 단오 TV 방영 시간대, 배달의 단오나 단오체험팩에 선정되지 않아 아쉬웠다는 내용이 각각 2건 있었다.

기대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19건으로 주를 이루었고, 요청 사항으로는 단오부채 판매 요청 1건을 비롯하여 각각 다른 내용의 요청이 등장하였다.

## 좌담회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이야기하다

글 박경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강릉단오제를 치렀다. 매년 수 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을 연출해왔던 남대천 단오 축제의 장이 온라인상으로 이동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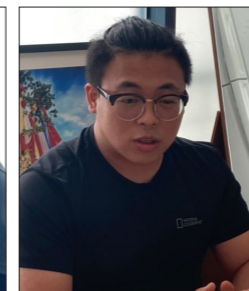
하지만 6월 21일~28일 펼쳐진 '온라인 강릉단오제'는 단오굿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들이 '단오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신주미 봉정 릴레이를 비롯해 각종 챌린지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막을 내리고 열흘이 지난 7월 8일,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실에서 단오제를 준비, 홍보에 힘을 보탠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



**김운석**  
강릉단오제보존회  
단오굿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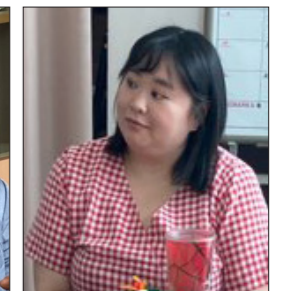
**심성규**  
스튜디오 엘(L)  
사진작가



**최고은**  
행복한 강릉맘 카페  
대표



**최광희**  
구정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최유진**  
강릉단오제위원회  
홍보팀장

**Q. 코로나19로 인해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나?**

**최유진 팀장** : 강릉단오제는 전통성이 강한 축제이고, 매년 축제기간이 경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많은 회의를 했다. 하지만 회의 결론은 항상 “조금 더 지켜보자”였다. 회의만 하니까 회의적이었다. 올해 한해를 쉬고 다음해 단오제를 준비하는 것이 본전치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 축제를 온라인으로 치르기에는 선례를 찾기도 어려웠고, 홍보팀의 부담은 더욱 컸다.

**최광희 사무국장** :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마다 단오 때가 되면 영신행차 길놀이 준비로 분주하다. 보통 한달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집행부는 단오제 3개월 전부터 길놀이 기획과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확보에 나선다.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기간이 약 한달가량 인데 올해는 준비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온라인 단오제로 치러지면서 길놀이 준비는 하지 않아 수고로움은 많이 덜었지만 주민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김운석 이수자** : 코로나19로 온라인 단오제가 펼쳐지면서 굿당이 국사여성황사에 차려졌다. 지정문화재 행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일반 관람객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유튜브를 통해 단오굿이 생중계되면서 무대공연과는 달리, 날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았다. 굿의 매력은 현장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관람객들의 출입이 통제됐지만 국사여성황사 입구에서 시민 개개인의 소원과 이름이라도 받아 축원을 해줬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고은 대표** : 강릉단오제위원회와 MOU를 맺고 행복한 강릉맘 카페를 중심으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홍보에 힘을 보탰다. 사실 다 차려진 상태에 살짝 손만 걸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않은데다 아이들이 집에 있어 유튜브를 통해 ‘단오TV’를 함께 시청하며 강릉단오제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그동안 ‘강릉단오제=야시장, 난장’으로 인식됐는데 낮 시간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단오 공부도 하고, 배달의 단오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단오체험패키지, 영산홍 챌린지, 단오갈래 챌린지 등 즐길거리가 다양해 유익했다.

**심성규 작가** : 지난해 강릉단오제에서는 홍보영상 작업을 했고, 올해는 사진기록 작업을 맡았다. 그동안 강릉단오제를 기록한 사진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비슷한 장면의 사진이 많다. 올해는 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들이 관객 없이 진행되면서 좋은 장면을 찍는데 집중했다.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느긋하게 사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지만 매년 단오굿당을 지켜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건 아쉽다.



**Q. 온라인 강릉단오제로 치러지면서 축제를 즐기는 층이 젊어지고 다양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고은 대표** : 온라인 단오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웠고, 낮에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집에 머무르면서 유튜브로 ‘단오TV’를 시청하며 강릉단오제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됐다.

**김운석 이수자** : 국악강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로 수업을 갈 때 단오제 수업을 반드시 넣는다.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강사들을 대상으로 강릉단오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단오제 열리기 전에 교육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오제 해설 교육이 필요하다. ‘단오제를 왜 하는지’ ‘단오제를 즐기는 방법’ 등을 아이들에게 안내해줬으면 한다.

**Q. 올해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호평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청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유진 팀장** : 올해 신주미 봉정 릴레이는 내년에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강릉단오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소통한 분들에게 수리취떡과 단오주를 배달해 드리는 ‘배달의 단오’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에게 전달된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 단오제를 해도 못 오시는 분들을 챙긴 배달의 단오는 단오정신을 담은 프로그램이었다. 단오놀이단 단따라 활동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 ‘단오캐릭터’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영산홍 챌린지도 시즌2로 이어가 단오제 노래를 대중화했으면 한다.

**최광희 사무국장** : 길놀이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했으면 한다. 오프라인 단오제에서 길놀이는 21개 읍·면·동마다 레드카펫에서 3분 정도 선을 보이는데 주민들의 준비시간과 정성에 비해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짧다. 내용 전달도 어렵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각 읍·면·동별로 준비해온 길놀이 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주고, 길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등을 나눌 수 있는 장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최고은 대표** : 매년 열리는 강릉단오제이지만 단오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온라인 단오제를 보면서 단오와 관련해 모르는 단어들도 많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단오제를 더 신명나게 즐길 수 있도록 단오제 시작 단계에서 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성규 작가** : 강릉단오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같이할 경우 외지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예고영상 등을 통해 행사 장소,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를 돕는 한편 짧은 라이브 방송 등도 제작해 활용했으면 한다.

**김운석 이수자** : 단오굿은 오후 6시면 끝난다. 유튜브 ‘단오TV’를 낮시간이 아닌 저녁시간에 방송했으면 한다. 직장근무 등으로 낮시간대에 단오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하이라이트 공연, 지정문화재 행사 등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강릉단오제는 현장성과 단오제만의 고유성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노출시키기 보다 정리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맞다.

## Q.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최유진 팀장** : 심적으로 고민이 컸지만 단오제위원회에서 10년 일하면서 가장 재미있고 보람있었다. 홈페이지 유입수는 약 4만명, 페이지뷰는 10만회를 기록했다. 타지역 축제조직에서 벤치마킹하고자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온라인 단오제를 함께 준비해 온 회사들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부적으로 가장 큰 수확은 앞으로 강릉단오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영상, 사진을 많이 확보했다. 그동안 축제 현장 기록 영상, 사진이 대부분이다 보니 자료 요청시 마땅한 홍보사진, 영상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올해 많은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다.

**최광희 사무국장**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평가한다면 “올해는 단오를 안했다”. 흔히 ‘몸으로 때우는게 단오다’라고 했다. 올해는 몸으로 때운게 없다. 하지만 온라인 단오를 통해 많이 배웠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이어온 길놀이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단오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김운석 이수자** : 단오제 슬로건 중에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전통은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 남는다. 내년에도 변화 속에 변함없는 단오제가 되길 바라며, 오프라인 단오제가 복구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최고은 대표** : 지금까지의 강릉단오제는 단오장 안에서 즐겼다면 올해 온라인 단오제는 단오장 밖에서 들여다 봤다. 강릉단오제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심성규 작가** : 온라인 강릉단오제는 돌아보는 단오였다. 오프라인 단오제 일때는 먹거리, 난장에 집중했다. 올해 온라인 단오제는 단오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가는 곳 마다 에너지 넘쳤던 단오놀이단 단따라팀의 활동이 인상깊다.

# 단오제

지나온 천년·이어갈 천년

## 부 록



# 강릉단오제위원회 언론보도

## 지나온 천년·이어갈 천년 2020강릉단오제

2020.5.11	동아일보	1,000년 전통 '강릉단오제' 코로나 탓에 온라인 속으로
2020.5.11	조선일보	코로나, 1,000년 전통 '단오제'도 세웠다.
2020.5.11	한국일보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 온라인으로 즐긴다.
2020.5.11	서울신문	'천년축제' 강릉단오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20.5.11	경향신문	'강릉단오제' 행사 축소, 온라인 위주로 진행
2020.5.12	강원도민일보	올 단오제 난장없이 '온라인 단오제' 선보인다.
2020.5.19	중앙일보	강릉선 온라인 단오굿, 인제선 드라이브 인 콘서트
2020.5.20	강원일보	시민 정성 모아 천년 단오제 성공 기원
2020.5.20	강원도민일보	'멈추지 않는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로 봉업
2020.5.20	연합뉴스	코로나 19에도 강릉단오는 멈추지 않는다.
2020.5.20	뉴스핌	강릉시의회,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 참여
2020.5.21	강원일보	서막 알린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
2020.5.21	강원도민일보	강릉시·시의회, 올해 단오제 첫 신주미 봉정
2020.5.22	문화일보	1,000년의 축제 강릉단오제, 올엔 온라인서 만나요!
2020.5.25	대학저널	가톨릭 관동대 황창희 총장,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 참여
2020.5.28	강원도민일보	'천년축제' 강릉단오제 서막 없는 신주밧기 행사 진행
2020.5.28	강원일보	강릉단오제 신주밧기 성료
2020.6.1	업코리아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
2020.6.1	뉴시스	강릉단오제 단오체험팩 2,000개 무료 제공
2020.6.2	강원일보	강릉 단오체험팩 무료 배부
2020.6.2	이뉴스투데이	강릉단오제위원회, 새로운 단오등 선보여
2020.6.3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
2020.6.4	FPN	진행인 강릉소방서장,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 참여
2020.6.6	강원도민일보	강릉 '단오체험팩' 하루 만에 1,500여개 신청 단오제 인기 실감
2020.6.8	강원일보	역병 물리치고 평화·안녕 되찾게 하소서
2020.6.11	강원일보	강릉시내 누비는 단오제 홍보단
2020.6.11	이뉴스투데이	강릉단오제 신주미봉정 릴레이 국내외서 참여 이어져
2020.6.11	강원도민일보	'신주미봉정릴레이' 세계 각지 응원 속 마무리
2020.6.16	이뉴스투데이	연중엔 '온라인 단오제'
2020.6.16	이뉴스투데이	강릉단오제 온라인 소외계층 'QR코드'로 축제 홍보
2020.6.17	강원일보	강릉단오제 단따라와 놀아보세
2020.6.18	강원도민일보	강릉단오제 주제작으로 '영산홍첼린지' 함께해요.
2020.6.18	강원일보	강릉단오제 '영산홍 댄스 첼린지' 함께해요.
2020.6.18	세계일보	강릉단오제를 비대면으로 관람...LG헬로비전의 색다른 시도
2020.6.19	강원일보	온라인강릉단오제 카메라로 찍으면 24시간 단오문이 열린다.
2020.6.19	강원일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시공간 초월한 단오제 즐겨보세요.
2020.6.20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릉단오제, 내일부터 축제 새역사 쓴다.
2020.6.20	이뉴스투데이	온라인 강릉단오제 21일 개막
2020.6.22	강원도민일보	사상 첫 온라인 단오 개막, SNS 참여 활발
2020.6.22	강원일보	사상 최초 온라인 강릉단오제
2020.6.23	강원도민일보	강릉단오제 생중계 '단오TV' 시민 소통창구 역할 톡톡
2020.6.23	강원일보	코로나 종식 비나이다, 오늘 단오 영신제
2020.6.24	국민일보	강릉단오제, 올엔 온라인으로 즐기더라도
2020.6.24	강원일보	세계인 홀린 온라인 단오제
2020.6.24	강원일보	그때 그시절 추억 전하는 강릉사투리 맛갈나네
2020.6.25	강원일보	온라인 강릉사투리대회로 조이재 할머니 대상

# 강릉단오제위원회 언론보도

## 강원도민일보

### 올해 강릉단오제 축소 여부 오늘 결정

시·단오제 위원회 총회 개최  
민속경기·길놀이 등 방식 논의  
감염 방지-전통 보존 의견 분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가 축소될지 주목된다.

시는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의 개최 규모 등에 대해 11일 강릉단오제 위원회 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키

로 했다. 시와 단오제 위원회 등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개최 규모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총회를 열고 올해 단오제 개최 방식에 대해 결정키로 했다.

시는 신주밧기와 대관령국사성황제, 단오굿, 제례, 관노가면극 등 지정 문화제 행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준해 진행하기로 한 상태이

며, 이번 총회에서는 단오난장, 민속경기, 경축공연, 길놀이 행사 등의 개최 방식 의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강릉단오제에 대한 참여세대 확장고 공간 확장을 위한 사업 구성안도 함께 논의된다. 지역에서는 단오제가 아직 한달 넘게 남아 있어 천년의 축제 맥을 이어가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광객 밀집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어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이번 단오제 행사 규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저지와 전통축제 개최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단오제 기간은 오는 6월 21~28일까지이며 단오제 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홍성배**

2020년 05월 11일 (월)  
지역 12면

## 江原日報

2020년 05월 12일 (화)  
지역 12면

### 강릉단오제 '온라인 축제'로 치른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 방침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5개 행사 생중계로 진행  
사투리 대회 등 체험도

【강릉】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중동충기중추군) 사태에도 지장문화제 행사만 개최한 전례가 없던 강릉단오제위원회는 11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2020강릉단오제 개최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재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중심으로 강릉단오제의 전통을 이어 가기로 결의했다.

이어서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시가 공동으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시작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온라인 단오제는 새로운 도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강릉단오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올해 강릉단오제 추진방안을 결정하는 강릉단오제위원회 총회가 11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보존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올해 단오제를 SNS 생중계와 사전제작 콘텐츠 송출 등 온라인 방식으로 결정했다. 강릉=권태원기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강릉단오제 체험을 시도하고 강릉단오제 본 행사 기간인 내달 21~28일 온라인 스테이지와 강릉단오굿 생중계 등 8개 분야 15개 행사를 진행한다.

단오제 범위를 위해 SNS를 통해 '신주미 봉정 첼린지'를 진행하고 단오의 흥을 살리는 단오놀이단 '단따라'도 운영,

윤지이는 단오포토존을 통해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알린다. 단오 기간 단오굿을 라이브 실황중계하고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학산오독매기, 사천하 평담놀이 등 전통연희와 관아문과 지역예술인 한마당, 신봉대길 길놀이인 사천하 영상으로 제작해 단오 기간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

쌍방항 시민 참여를 위해 단오소원등 밝히기, 온라인 강릉

사투리대회, 영산홍첼린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단오체험 패키지, 단오신주 교환, 단오갈래 첼린지 등을 통해 다양한 단오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강릉시 (사)강릉단오제위원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천년단오를 계승하기 위해 지정문화제 행사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경축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상원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5월 12일 (화)  
지역 13면

### 단오제 길놀이 없애고 SNS 실황 중계

코로나19 확산방지 온라인 진행  
지정문화제 관계자 중심 개최  
아외행사 대신 SNS 실황 중계



강릉시와 단오제위원회 등은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0강릉단오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릉=권태원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올해 '온라인 단오제'라는 초유의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강릉시와 단오제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커진 단오제의 원년 행사를 계승하고, 감염병 위기(중동충기중추군) 사태를 대비해 단오제 개최 방식을 변경하는 선의의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따라 올해 단오제(5월 21~28일) 행사 기간인 내달 21~28일 온라인 스테이지와 강릉단오굿 생중계 등 8개 분야 15개 행사를 진행한다.

단오제 범위를 위해 SNS를 통해 '신주미 봉정 첼린지'를 진행하고 단오의 흥을 살리는 단오놀이단 '단따라'도 운영,

윤지이는 단오포토존을 통해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알린다. 단오 기간 단오굿을 라이브 실황중계하고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학산오독매기, 사천하 평담놀이 등 전통연희와 관아문과 지역예술인 한마당, 신봉대길 길놀이인 사천하 영상으로 제작해 단오 기간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

쌍방항 시민 참여를 위해 단오소원등 밝히기, 온라인 강릉

사투리대회, 영산홍첼린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단오체험 패키지, 단오신주 교환, 단오갈래 첼린지 등을 통해 다양한 단오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강릉시 (사)강릉단오제위원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천년단오를 계승하기 위해 지정문화제 행사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경축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상원기자**

## 江原日報

2020년 05월 11일 (월)  
지역 12면

### 오늘 강릉단오제 추진방안 결정

【강릉】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올해 강릉단오제 추진방안을 결정하는 강릉단오제위원회 총회가 11일 오전 11시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열린다. 다음 달 21~28일 열릴 예정인 2020 강릉단오제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올해 강

릉단오제 개최 방식을 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신주밧기와 대관령국사성황제 등 지정문화제 행사는 오제전수교육관에서 열린다. 시에에 준해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 결정은 같은 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조상원기자 jsw0724@**

# 강릉단오제위원회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0년 05월 11일 (월)  
종합

## 코로나, 1000년 전통 '단오제'도 세웠다

SNS 등 온라인 방식 진행  
온라인 축제 진행은 처음



강릉 사천하평담고놀이 모습. /강릉단오제위원회

신종 코로나가 1000년의 전통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까지 멈춰세웠다.

강릉시 강릉단오제보존회·강릉단오제위원회는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지역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단오제를 SNS 생중계와 사전제작 콘텐츠 송출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신주빔기와 대관령 국사 성황제, 봉안제, 대관령 산신제, 고유제,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등 지정 문화재는 일부 관계자만 최소화로 참석해 진행된다.

올해 강릉단오제 오는 27일 신주빔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펼쳐진다.

단오제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엔 단오 제례만 진행됐다.

강릉 단오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1000년을 이어온 강릉의 대표 축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어려운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오는 등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지난 2005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선정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로 성장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방식의 축제 진행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젊은 세대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노가면극과 확산오독매기 등의 공연은 영상을 사전 제작해 온라인으로 송출하며, 단오 소원 등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는 제작 키트를 시민들에게 택배로 발송한다.

강릉사투리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사투리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영상을 보고 심사해 순위를 가른다.

김동찬 강릉단오제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르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온라인 단오제로 열기로 했다"며 "코로나위기를 새롭게 성장하는 단계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eongsw@chosun.com]

대신 온라인으로 단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았습니다.

SNS를 활용해 지정문화재 행사와 전통연희, 지역예술인 한마당을 생중계 하고,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이모저모를 알아볼 수 있게 단오 TV를 운영합니다.

단오 소원등이나 단오 체험팩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배달돼 집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흥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긴 했어도, 단오제에 애정이 남다른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안하면 서운하고 말고죠 당연히 해야하고 오랜 역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천년 역사인데 이 기회에 코로나 19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너무 서운하죠. 마을 아프죠. 기분 좋죠 저희야"

◀스탠드 업▶  
강릉 단오제는 축제 취소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성패 여부에 따라 국내 다른 축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2020년 05월 11일 (월)  
강원

MBC 강원영동

## 투R)강릉단오제, 온라인 축제로

배연환



강릉단오제, 온라인 축제로

◀ANC▶  
올해 강릉단오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정 문화재 행사만 비공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대전 난전과 민속 놀이 등 외부 공개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강릉단오제를 축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주빔기와 대관령산신제를

한 달 미루는 데 이어 대부분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T▶ 김년기/강릉시 문화관광복지국장

"오프라인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단오제위원회하고 보존회하고 구성하게 됐고요."

((이음말=배연환))

"이에 따라 올해 강릉단오제는 남대전 굿당의 굿과 난전 등 외부 공개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불꽃놀이와 농악 경연,고교 축구 정기전 등도

달리지 않습니다.

지정 문화재 행사인 신주빔기와

대관령산신제는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단오굿은 남대전 굿당이 아닌 여성황사에서

비공개로 치며 온라인 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단오제를 만들기 위해

2020년 05월 11일 (월)  
강원

G1

## [이 시각 주요 뉴스] 강릉단오제 "온라인으로 연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앵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천년축제 강릉단오제를 개최하나 마나가 강릉지역에선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일단 개최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축제를 취소하지 않고, 대신 '온라인' 강릉단오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

보도에 백행원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긴 고심끝에 단오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존 축제 기간을 그대로 유지해 다음달 21일부터 8일간 개최하되,

지난 2015년 메르스 상황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주 빔기와 대관령 산신제 단오굿 등 지정 문화재 행사에 관계자만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

니다.  
[인터뷰]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는 엄청난 역사성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오제를 계승하고 유네스코 인류 유형문화유산도시 강릉의 자책을 보여주고

자합니다."  
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민속경기와 길놀이, 난장 등 경축행사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江原日報

2020년 05월 19일 (화)  
지역 12면

## 온라인단오제 맘카페서 홍보 눈길

‘행복한 강릉맘’과 협약  
4일 만에 조회수 1,700회

【강릉】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펼쳐진 강릉 단오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맘카페로 유명한 행복한 강릉맘과 협약을 체결하고 맘카페에 온라인 강릉단오제 홍보를 시작했다.

강릉의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행복한 맘카페를 통해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다. 행복한 강릉

맘 측에서도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메뉴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자체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 온라인 강릉단오제에 대한 맘카페 회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14일 게시된 뒤 4일 만에 1,7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양한 댓글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김동찬 강릉단오제위원장은 “온라인 강릉단오제로 옷이 역사와 기원, 강릉시민들에게 지니는 의미를 아이들에게 알려 줄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상원기자

KBS 춘천

2020년 05월 18일 (월)  
강원

## 올해 강릉단오제 단오 신주 교환행사 실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강릉단오제의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지만, 단오 신주 교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올해 단오제에서도 단오 신주 교환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6월 5일까지 강릉시 읍면동주민센터와 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신주미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신주미 3kg을 접수하면, 단오 신주 교환권을 받게 되며, 강릉단오제 기간인 다음 달 21일부터 28일까지 단오 신주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창환 hwan0201@kbs.co.kr

2020년 05월 20일 (수)  
지역 12면

江原日報

## 시민 정성 모아 천년 단오제 성공 기원

오늘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

【강릉】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리는 강릉단오제가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로 시작을 연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는 20일 열리는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김한근 시장과 최선근 시의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시청에서 시 집행부들과 함께, 최 의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함께 각각 신주미 봉정 릴레이 첫

는 강릉단오제 기간 강릉단오 신주를 교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1 행사'가 더해져 신주미를 내면 1명은 자동으로 기부돼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개별 참여자는 쌀 3kg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신주미 자

를 받고 안내문과 신주교환권을 받으려면 된다. 문의는 강릉 단오제 위원회 ((033)641-1503)로 하면 된다. 조상원기자

강원도민일보

2020년 05월 20일 (수)  
지역 12면

## ‘멈추지 않는 강릉 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로 봄업

오늘 시장·시의장 릴레이 첫장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는 멈추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릉단오제 (6월 21일~28일)가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 봄업에 나선다. 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김동찬)에 따르면 오는 20일 김한근 시장과 최선근 시의장이 각각 시청과 시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 소망과 시민의 안녕을 빌며 신주미 봉정 릴레이 첫장을 연다.

신주미 릴레이는 참가자가 대상자 2명을 지정해 이어가며,예년처럼 신주교환권을 받아 강릉단오제 기간 중 신주로 교환한다. 특히 올해는 1+1 행사가 더해져 신주미를 내면 1명은 자동으로 기부돼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개별 참여자는 쌀 3kg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강릉단오제위원회에 전달하면 된다.

또 온라인 단오 홍보를 위해 내달 초부터 양반,소매각시,장자마리,시시딱딱이로 구성된 단오놀이단 ‘단따라’가 시전역에서 단오QR코드 사용법 등이 담긴 명함을 나눠주며 온라인 단오 프로그램 소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초 이내의 편곡된 영상홍가와 새로 제작된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을 개인 SNS에 올려 단오를 기념하는 ‘영상홍챌린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연제

# 강릉단오제위원회 언론보도

江原日報 2020년 05월 21일 (목) 지역 12면



20일 강릉시청 현관에서 김한근 강릉시장과 김동찬 강릉단오제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신주미를 봉정하고 있다. 강릉=권태영기자

## 서막 알린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가 시작됐다. 20일 열린 이날 행사는 김한근 강릉시장과 시집행부, 최선근 시의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렸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코로나

신주미 봉정 릴레이 시작 첫 주 강릉시장·시의장 나19로 어려운 이때 국난극복의 염원과 강릉의 평안함을 기원하며 신주미를 봉정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다음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참여할 인사로 최돈설 강릉시수화원장과 김상원 강릉시수

민자치위원장을 지목했다. 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주미를 봉정한 최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단오로 열리지만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알찬 단오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섭 시이통장협의회장과 박산자 강릉예총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강릉=조상원기자

연합뉴스 2020년 05월 20일 (수)

## 코로나19에도 강릉단오는 멈추지 않는다... 신주미 봉정 시작

송고시간2020-05-20 10:26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20일 시작됐다.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20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 현관에서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5.20

김한근 강릉시장 등 강릉시청 간부 직원들은 이날 오전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마련한 신주미 봉정 첫 릴레이에 참여했다.

신주미 봉정 릴레이는 단오제 기간 단오 주신인 국사성황신에 올리는 제례 등에 사용할 술을 빚기 위해 쌀을 실시함으로써 모는 행사다.

江原日報 2020년 05월 28일 (목) 사회 04면

## 강릉 단오제 신주빚기 성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첫 지경문화재 행사인 신주미 봉정 및 신주빚기가 27일 강원 강릉시청 대도호부관에서 열렸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빚기 행사가 27일 강원대도호부관과 칠사당에서 열려 시민들의 인성과 함께 코로나19가 더 이상 창궂하지 않기를 기원했다. 올해 강릉단오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강릉=권태영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첫 지경문화재 행사인 신주미 봉정 및 신주빚기가 27일 강원대도호부관에서 열렸다. 올해 강릉단오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강릉=조상원기자

강원도민일보 2020년 05월 28일 (목) 지역 13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지경문화재 행사인 '신주빚기' 행사가 27일 강원 대도호부관에서 열렸다.

## '천년 축제' 강릉단오제 서막 여는 신주빚기 행사 진행

단오제위·보존회 등 참여

'천년 축제' 강릉단오제가 '신주 빚기'를 시작으로 올해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강릉단오제위원회(위원장 김동찬)와 단오제보존회(회장 빈순애)는 27일 강원대도호부관에서 단오제 때 쌀을 빚는 '신주빚기' 행사를 공동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한근 시장이 내린 쌀과 누룩을 칠사당으로 가져간 뒤 신주를 담그는 술독을 제독하고, 부정국, 신주빚기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 신주빚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거리행차가 생략되고, 개인 접근이 제한되면서 신주 빚기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관광객들이 대도호부관아와 칠사당으로 몰려드는 진풍경은 연

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강릉단오제는 사상 처음 온라인 단오제로 개최된다. 단오굿을 라이브 중계하고, 전 통연회와 지역예술인 한마당 등은 사전 제작해 SNS를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전염병 퇴치를 기원하는 전통굿인 손님굿을 비증있게 부각하고, 10주년을 맞이한 신통대각 길놀이 자료를 다규형식으로 제작해 랜선 길놀이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강릉단오제는 내달 6일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열고, 내달 23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중계 및 영상재포 할 예정이다. 이면재



강원도민일보 2020년 05월 28일 (목) 종합 04면



'단오제 부정되지 않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지경문화재 행사인 '신주빚기' 행사가 27일 대도호부관아 칠사당에서 열렸다. 반순에 강릉단오제 단오굿 예능보유자가 신주가 무장을 타지 않도록 기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

KBS 강릉 2020년 05월 27일 (수) 강원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신주 빚기 시작

강릉단오제의 첫 지경문화재 행사인 신주미 봉정과 신주 빚기가 오늘(27일) 강원대도호부관아와 칠사당에서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올해 단오신주는 전국의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릴레이방식으로 신주미를 봉정해 빚어지며, 단오제 각종 제례와 행사가 쓰이게 됩니다.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야외 행사장 없이 대관령산신제와 단오굿 등 지경문화재 행사만 최소화해 개최됩니다.

김보람 bogu0602@kbs.co.kr

mac 강원일보 2020년 05월 27일 (수) 강원

## R) 강릉단오제 신주빚기 본행사는 온라인으로 박은지

ANC 단오를 한 달 앞두고 강릉단오제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 빚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경축행사와 난장 운영 등은 취소됐고 지경문화행사만 간략히 지르는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시도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강릉 대도호부관아 동헌에 마스크 쓴 제관과 무대 행렬이 도착하고

신주빚기와 부정국을 한바탕 풀어내며 잡귀를 쫓고 부정한 기운을 가시게 합니다.

SYN '부정국' 강릉 부사로 나선 김한근 강릉 시장은 술을 빚을 쌀과 누룩, 깨끗한 술알을 전달하며

강릉시민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전국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SYN 김한근 /강릉시장 '하루 속히 역병이 물러가고, 대한민국과 시민들의 건강과 평안이 돌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거리행차 없이 바로 칠사당에 재료가 옮겨지고 신주 빚기가 시작됩니다.

장작불을 피워 끝인 돌에 술알을 넣은 뒤 단기로 술독을 소독하고

다시 한번 부정을 씻은 뒤 제관들이 정성으로 밥과 누룩, 술알을 바꾸려 술을 빚습니다.

강릉단오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축행사, 난장 운영은 취소됐고 지경문화재 행사는 간략히 열릴 예정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지켜온 단오 정신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우리의 단오는 멈추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지경 문화재 행사 생중계와 단오TV 채널을 통한 랜선 길놀이, 광범형 온라인 사투리대회, 사전 제작한 축하공연 영상, 단오 체험책 발송 등 16개 단위행사가 마련됩니다.

INT 김동찬 /강릉단오제위원장 '단오 행사 중에 시민들이 광범형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만 모여서 시민들이 함께 참

G1 2020년 05월 27일 (수) 강원

## [뉴스 퍼레이드 강원] 강릉 단오제 신주빚기 행사 봉행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빚기 행사가 오늘 강원 대도호부관아와 칠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김한근 강릉시장이 재주를 빚을 때 쌀 쌀과 누룩을 내리는 신주미 봉정 행사에 이어 신주를 담그는 술독을 깨끗이하고 부정을 씻어내는 것을 한 뒤 신주를 빚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됐고, 강릉단오제보존회의 신주빚기 거리행차도 생략됐습니다.

올해 단오제는 다음달 23일부터 6일간 진행되며 민속경기와 길놀이, 난장 등 경축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대신 온라인 생중계와 온라인 참여 행사 위주로 치러집니다.

MBC 강원영동 2020년 06월 01일 (월) 강원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단오체험팩 발송 박은지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맞아 단오체험존 프로그램을 집에서 즐기는 체험팩 행사가 열립니다.

단오체험팩 나누기는 단오부채와 관노탈, 소원등, 캐릭터스티커 등 구성품을 신청자의 집으로 배달하면

체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단오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1천 5백 가구에 선착순 발송합니다.//

# 강릉단오제위원회 언론보도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01일 (월)  
지역 14면



강릉시산림조합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 강릉시산림조합은 최근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강릉단오제 성공 기원,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2020년 06월 01일 (월)  
강원

### [G1 8 뉴스]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단오체험팩 무료 배부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단오체험팩 무료 배부  
주요뉴스 |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코로나19'를 기회로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오늘(1일)부터 단오체험팩 2천개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단오체험팩은 단오체험촌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단오 부채와 관노탈, 단오 소원등 등을 묶어 만든 것으로 '온라인 강릉 단오제'를 치르면서 집에서도 단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단오체험팩은 강릉 단오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SNS 동참이나 유튜브 구독을 약속하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江原日報

2020년 06월 03일 (수)  
인물 21A면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참여한 설운도(왼쪽)·이지연.

### 한국 트로트계 전설들 신주미봉정 릴레이 참여

한국 트로트계의 전설 이자 연, 설운도, 남진이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동참했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지목으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참여한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자연을 지목했고, 이지연이 남진을, 남진이 설운도를 지목하면서 트로트 전설의 신주미봉정 릴레이가 완성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년을 이어가는 강릉단오제를 위해, 강릉시민을 위해 신주미를 봉정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릉=조상원기자

## 江原日報

2020년 06월 04일 (목)  
지역 12면

### QR코드 찍으면 강릉단오제가 펼쳐집니다

온라인 접근성 높여  
축적 홍보 효과 기대



【강릉】"큐알(QR)코드 하나만 찍으면 온라인 강릉단오제 세상이 펼쳐진다."

전년축제 강릉단오제가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온라인 강릉단오제로 개최되는 가운데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로 홍보에 나서 주목된다.

QR코드 홍보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QR코드만 있으면 영상상이든 글이든 다양한

◇2020 강릉단오제의 다양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QR코드.

홍보물에 바로 연결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온라인 강릉단오제에는 강릉단오제 홍보영상을 비롯해 단오제함팩 언박싱, 신주미 봉정 릴레이 참가자들의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돼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 진찍기 기능을 켜고 QR코드에 갖다대면 자동으로 인식해 강릉단오제 홈페이지나 유튜브브 '온라인 강릉단오제'로 바로 연결된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벽면에 붙여있는 온라인 강릉단오제 대형 현수막과 거리에 붙여 있는 강릉단오제 홍보 포스터, 홍보자료 등에 담긴 QR코드 역시 온라인 강릉단오제로 연결해 주는 장구다.

조상원기자 jw0724@kwnews.co.kr

## 江原日報

2020년 06월 11일 (목)  
지역 12면

### 강릉단오제 신주미 봉정 벌써 8톤 답지

미국·캐나다 등 3개국에서 신주미 자루 2,700개 모여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혜리 등 유명인사 동참 효과



【강릉】시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2020 강릉단오제'의 분위기를 위해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10일 신주미 봉정 릴레이 참가자 43개 시·군에서 신주미 봉정 참여해 온이 넘는 양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신주미 자루(3kg)

2,700여개가 모인 셈이다. 올해 처음 시도된 온라인 신주미 봉정 릴레이는 시간간을 넘어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왔다.

강릉단오제와 교류하고 있는 캐시세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부평중흥대학교 조직위원회, 강원농악보존회, 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연합회, 강릉지역 4개 대학, 언론사 등 72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강릉단오제에서 매년 민속놀이를 주관했던 강릉지역 문화재단과 4개 대학, 강릉지역 라이온스클럽(총연합회), 강릉청년농악보존회 등 기관·단체도 강릉단오제에 큰 애정을 보였다. 2015

강릉시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2020 강릉단오제'의 분위기를 위해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10일 신주미 봉정 릴레이 참가자 43개 시·군에서 신주미 봉정 참여해 온이 넘는 양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신주미 자루(3kg)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2020 강릉단오제의 분위기를 위해 시작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동참한 강릉 출신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혜리 선수.

## 연합뉴스

2020년 06월 10일 (수)

### '온라인 강릉단오제' 응원 열기...신주미 봉정에 쌀 100가마 견혀

송고시간 2020-06-10 14:55

단오제위원회 "코로나19 위기를 확장 기회로"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사상 처음 온라인에서 열리는 강릉단오제를 응원하는 열기가 뜨겁다.



신주미 봉정에 참여한 강릉 출신 오혜리 선수  
[강릉단오제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강릉단오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신주미 접수 결과 미국과 캐나다 등 3개국 14개 지역, 43개 시·군에서 80kg 기준 100.5가마의 쌀이 모였다.

신주미 자루(3kg)로 환산하면 2천700여개가 모인 것이다.

신주미 봉정 릴레이는 단오제 기간 대관령 국사성황제 등에서 사용하는 술과 떡을 빚기 위해 실시될 쌀을 모으는 행사다.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11일 (목)  
지역 14면

### '신주미봉정 릴레이' 세계각지 응원속 마무리

쌀자루 2700여개 100.5가마 접수  
강릉출신 금메달리스트 오혜리 참여

코로나19여파 속에서 올해 강릉단오제에 사용할 술과 떡을 빚는 데 쓰이는 쌀을 모으는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미국 등 세계각지의 응원 속에 성황리 마무리됐다.

강릉단오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3kg 기준 신주미 쌀자루 2700여개가 모여 80kg 1가마를 기준으로 100.5가마가 접수됐다. 지난해 171가마의 쌀이 모였던 것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온라인 단오제로 진행된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생활·경제가 힘든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단오제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참여 열

기가 고조됐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과 강릉단오제와 교류 중인 제주예총,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부평중흥대학교 조직위원회를 비롯 출향인, 타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강릉출신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리스트 오혜리 선수와 트로트계의 전설인 이자연, 남진, 설운도씨 등 유명인사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내에서는 김한근 시장과 최선근 시장의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시동을 건 것을 시작으로 강릉문화원, 강릉예총, 강릉농악보존회, 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연합회, 강릉지역 4개 대학,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사 등 72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강릉단오제에서 매년 민속놀이를 주관하는 지역 내로 다리 클럽, 라이온스 협회, 청년회의소는 앞다투어 쌀을 보내며 단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이연재

- 1 -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10일 (수)  
강원

### [G1 8 뉴스] 강릉단오제 신주미 100가마 봉정 '성황'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2020 강릉단오제를 위해 시작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80kg 기준 쌀 100가마가 모아졌습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시작된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3개국 43개 시·군에서 참여해 3kg짜리 신주미 자루 2천7백개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모인 쌀은 단오신주미로 만들어지는데, 신주미를 봉정하고 받은 교환권으로 오는 21일부터 8일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신주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 기부 약속에 따라 어려운 이웃과 21개 읍면동 경로당, 의료진 등에게도 신주미를 나눠주게 됩니다.



# 강릉단오제위원회 언론보도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지역 11면

### 사상 첫 온라인 단오 개막, SNS 참여 활발

#### 28일까지 16개 행사 진행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초 온라인 축제로 진행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국가무형문화제 제13호 강릉단오제가 21일 본격 개막했다. 강릉단오제는 오는 28일까지 단오굿 라이브, 전통연희공연, 강릉단오제 알쓸신잡, 시민참여 챌린지, 신주교 환 등 16개 행사가 펼쳐진다.

개막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강릉단오제 공식 유튜브와 LG텔레비전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역, 고속버스터미널, 경포해변 등 시민들을 찾아가 축제의 흥겨움을 전했다. 온라인 단오가 생산한 에프린트와 관광객들을 위해 도상 관광지도인 월화 거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온라인 단오 생중계를 펼쳤다.

현재각종 SNS에는 영산홍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산홍 챌린지와 단오 장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편집해 넣은 단오갈래챌린지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며 색다른 단오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앞서 축제의 시작을 알린 신주마봉정릴레오는 미국, 호주에서까지 북이 일었고, 두 차례 사전신청을 받은 2400여개의 단오제첩팩은 이틀만에 동이되며 온라인 단오의 시민 참여를 증명했다. 이연제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기획 B01면



강릉 단오의 시작을 알리는 국악서사시 낭독이 한창인 가운데 단오제위원회 단오제보통 회원들이 흥겨운 춤을 추고 있다.

### '천년 단오' 온라인으로 무대 옮겨 신명나는 축제 한판

코로나19로 대정확회 행사단 단오굿 23~26일 상황중계 반가워극 등 공연인 사설 SNS등 온라인 단오제 진행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제 13호인 강릉단오제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공연이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역, 고속버스터미널, 경포해변 등 시민들을 찾아가 축제의 흥겨움을 전했다. 온라인 단오가 생산한 에프린트와 관광객들을 위해 도상 관광지도인 월화 거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온라인 단오 생중계를 펼쳤다.

현재각종 SNS에는 영산홍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산홍 챌린지와 단오 장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편집해 넣은 단오갈래챌린지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며 색다른 단오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앞서 축제의 시작을 알린 신주마봉정릴레오는 미국, 호주에서까지 북이 일었고, 두 차례 사전신청을 받은 2400여개의 단오제첩팩은 이틀만에 동이되며 온라인 단오의 시민 참여를 증명했다. 이연제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기획 B03면

### 순안에서 펼쳐지는 천년축제, 그 새로운 서막



김한곤 단오제위원장



김동한 단오제위원장



김인연 단오제위원장

올 해 2020 강릉단오제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역, 고속버스터미널, 경포해변 등 시민들을 찾아가 축제의 흥겨움을 전했다. 온라인 단오가 생산한 에프린트와 관광객들을 위해 도상 관광지도인 월화 거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온라인 단오 생중계를 펼쳤다.

현재각종 SNS에는 영산홍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산홍 챌린지와 단오 장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편집해 넣은 단오갈래챌린지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며 색다른 단오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앞서 축제의 시작을 알린 신주마봉정릴레오는 미국, 호주에서까지 북이 일었고, 두 차례 사전신청을 받은 2400여개의 단오제첩팩은 이틀만에 동이되며 온라인 단오의 시민 참여를 증명했다. 이연제

역, 고속버스터미널, 경포해변 등 시민들을 찾아가 축제의 흥겨움을 전했다. 온라인 단오가 생산한 에프린트와 관광객들을 위해 도상 관광지도인 월화 거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온라인 단오 생중계를 펼쳤다.

현재각종 SNS에는 영산홍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산홍 챌린지와 단오 장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편집해 넣은 단오갈래챌린지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며 색다른 단오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앞서 축제의 시작을 알린 신주마봉정릴레오는 미국, 호주에서까지 북이 일었고, 두 차례 사전신청을 받은 2400여개의 단오제첩팩은 이틀만에 동이되며 온라인 단오의 시민 참여를 증명했다. 이연제

온라인 축제 확대해 세정 새로운 희망·가능성 발견 추위·감동·즐거움 알릴 것

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스마트폰 너머 근한친정 축하의 본진이 밝혀져 찾아 다른 소통의 장 열릴 기대

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유네스코 선정 축제 15주년 위기에 지 헤쳐나갈 창조 코로나19 조속한 종식 기원

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기획 B02면

### 오래 '단오굿' 요즘 트렌드 맞게 유튜브 라이브로 보세요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소개

1년 중 단오만 있는 단오제에 관심을 갖는 단오가 시작됐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저장형사 포맷 6분 분아 15개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영유 단오굿 유튜브 채널 사전 전문가 해설 전문 비대면 생중계 단오제첩 팩·영상 송출가 챌린지 등 SNS 인공 놀이 SNS등 온라인 단오제 진행

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기획 B05면



크고·울리고·즐거고 '다르 또 같이' 풍성한 단오

강릉단오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광고 B04면

###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www.danojefestival.or.kr  
www.youtube.com/gangneungdanojefestival

카메라를 대면 단오가 보입니다.

6월 21일(일)~28일(일) 매일 14시~16시 <2시간>  
강릉단오제 공식유튜브채널에서 라이브방송 (LG 텔레비전 채널25번 동시 송출)  
"관심있는 강릉단오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GRAM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굿 LIVE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신주교 환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단오제 축하 행사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기획 B06면

### 석창포 담근 우리 술 '향과 맛', 축제 '흥과 멋' 더한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기획 B07면

### 21개 읍면동 주민 연출한 거리퍼레이드, 다큐로 만나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오제 보편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통해 단오TV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단오TV는 단오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알고놀자 온라인 단오과 해설이 있는 단오굿, 21개 읍면동 주민들의 출연, 단오의 추억을 되새기는 단오라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단오놀이단 단파라가 유세차가 아침해저녁출·퇴근길, 강릉

# 강릉단오제위원회 언론보도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2일 (월)  
기획 B07면

**강릉단오제 정보 QR코드로 한눈에**

“QR(큐알)코드를 찍으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즐길 수 있어요”

코로나19사태로 올해 강릉단오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 강릉단오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제작했다. QR코드는 읽히는 즉시 강릉단오제 유튜브로 연결되면서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실시간 생중계와 관련 홍보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다. QR코드는 어플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온라인 강릉단오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초부

터 단오제가 끝날 때까지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QR코드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QR코드는 시 곳곳에 게재된 강릉단오제 홍보포스터와 성내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강릉본부 벽면에 붙여놓았다. 이연제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3일 (화)  
지역 11면

### 강릉단오제 생중계 '단오TV' 시민 소통창구 역할 특

#### 본사주최 창포주 품평회 등 진행

온라인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21~28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로 펼쳐지는 '단오TV'가 시민·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단오TV의 첫 프로그램으로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한 '대한민국 강릉 단오 창포주 선발대회' 품평회가 진행됐다. 이날 품평회에는 최동열 강원도민일보 강릉본사 본부장과 김상원 시주민자치위원장, 김문섭 시이·통장연합회장, 허시명·송분선 강릉단오제 창포주 선발대회 심사위원이 출연해 창포주를 직접 맛보고, 심사기준을 설명하며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생중계가 시작되자 강릉단오제 유튜브 댓글창은 시민들의 소통 창구가 됐다. 댓글에는 '더운 날 방에서 단오를 즐기게 되다니', '매일 출석도장 찍을 거예요', '창포주도 머리만 감는 게 아니었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



온라인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실시간 생중계로 '단오TV'가 펼쳐지는 가운데 22일 첫 프로그램으로 창포주 품평회가 진행됐다.

다. 이날 단오TV에는 창포주 품평회를 비롯 랜선길놀이, MC가 만든 단오 체험팩, 단오극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도심 관광지인 월화 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단오TV가 생중계되면서 지나가던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단오TV는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강릉단오제 공식 유튜브채널과 LG헬로비전 채널 25번, 단오극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연제

2020년 06월 21일 (일)  
강원

## MBC 강원영동

### 온라인 강릉단오제 개막

이용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처음 시도한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온라인 강릉단오제는 오는 28일까지 유튜브와 헬로비전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는 단오 TV를 통해 하루 2시간씩 해설이 있는 단오극과 사투리대회, 배달의 단오 현장 연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단오놀이단 단따라가 강릉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중앙시장, 경포해변 등을 찾아가 축제의 흥겨움을 전하고 온라인 단오제 홍보에 나섭니다. //

2020년 06월 21일 (일)  
강원

## G1

### [G1 8 뉴스] 온라인 강릉단오제 개막.. '축제의 새로운 지평'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단오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어제(21일) 개막했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단오체험팩 방구석 챌린지와 연산홍 챌린지, 랜선길놀이, 단오극 등 16개 행사를 공식 유튜브채널과 단오극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선보입니다.

온라인 개막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단오 부채와 관노탈 등 체험팩을 통해 즐기고,

강릉단오제의 상징 노래인 연산홍가에 맞춰 댄스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온라인 단오제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 江原日報

2020년 06월 23일 (화)  
지역 12면

### “코로나 종식 비나이다” 오늘 단오 영신제

23~28일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단오극 유튜브 생중계

【강릉】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의 2020 지정문화재 행사가 23~28일 6일간 강릉 흥제중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서 열린다. 첫날인 23일 오후 6시 영신제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조전제가 봉행되며 이어 단오극이 펼쳐진다. 단오극의 경우 올해 'ON-

LINE(온라인) 강릉단오제'를 통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매일 운영하는 온라인 강릉단오제에서는 황무시 가톨릭관동대 명예교수의 해설이 덧붙여 중계돼 단오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매일 오후 5시30분 대관령국사여성황사 앞에서 관노가면극 공연이 신

명 나게 펼쳐진다. 빈순애 (사)강릉단오제보존회장은 “올해 강릉단오제는 강릉의 번영과 안녕,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며 “부득이하게 강릉 단오제보존회 회원 및 관계자 외의 참관을 제한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내년 강릉단오제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신명 나는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조상원기자

## 江原日報

2020년 06월 24일 (수)  
지역 12면



◇몽골 튜브도 트리기타 극장 소속 무용단이 온라인으로 영산홍 챌린지에 참여해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

### 세계인 홀린 온라인 단오제

유튜브 조회 2천건 넘어 몽골·캐나다 등서도 참여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2020 강릉단오제의 조회 수가 2,000건을 넘어서는 등 기대 이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지난 21일부터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온라인 강릉단오제는 영산홍 챌린지, 단오갈래 챌린지, 단오체험 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수상자 하이라이트 영상, 최근 10년 동안 진행된 신통대길 길놀이 영상을 제공한다. 강릉사투리대회 단골 사회자로 활약한 심명숙씨는 매일 방송에 출연, '강릉사투리 배워봅시다' 코너를 이어가고 있다.

강릉단오제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자 해외의 반응도 뜨겁다. 강릉=조상원기자

오랫동안 강릉단오제에 참여해 온 몽골 튜브도 트리기타 극장 소속의 무용단은 영산홍 챌린지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아쉬움을 달랬다. 또 2018년 강릉단오제를 찾은 캐나다 뉴브런즈윅의 로빈씨 가족은 영산홍가에 맞춰 탭댄스를 추며 온라인 강릉단오제를 응원했다.

온라인 단오로 단오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위해 23일 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자원봉사센터가 힘을 모아 배달의 단오로 독거어르신 250가구에 수리취떡과 신주를 배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시민들은 “온라인 단오 드라마보다 재미있다”, “몽골, 캐나다 말 그대로 세계와 함께하는 단오라 뿌듯하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부터는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서 단오극과 조전제, 관노가면극이 펼쳐진다. 강릉=조상원기자

## G1

2020년 06월 22일 (월)  
강원

### [이 시각 주요 뉴스] 아/온라인 강릉단오제 개막.. '축제의 새로운 지평'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단오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어제(21일) 개막했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오는 28일까지 단오체험팩 방구석 챌린지와 연산홍 챌린지, 랜선길놀이, 단오극 등 16개 행사를 공식 유튜브채널과 단오극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선보입니다.

온라인 개막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단오 부채와 관노탈 등 체험팩을 통해 즐기고,

강릉단오제의 상징 노래인 연산홍가에 맞춰 댄스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온라인 단오제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 강릉단오제위원회 언론보도

江原日報

2020년 06월 24일 (수)  
면화 22면

## 그때 그시절 추억전하는 강릉사투리 맛깔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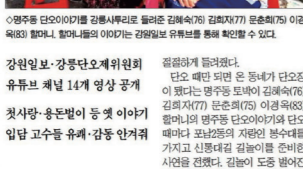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린 제27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에 승은 사투리 고수들이 출품했다.



강릉일보와 강릉단오제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영상에 승은 사투리 고수들이 출품했다.

강릉일보와 강릉단오제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영상에 승은 사투리 고수들이 출품했다.



강릉일보와 강릉단오제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영상에 승은 사투리 고수들이 출품했다.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6일 (금)  
지역 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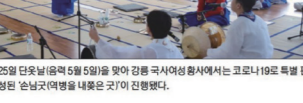
## 온라인 강릉단오제 역병 쫓는 손님굿 '인기'

유튜브 채널 통해 실시간 방송 코로나19 속 응원 댓글 아이제 신주-배달의 단오 신청 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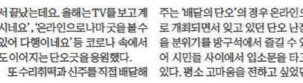
한구, 기죽, 지인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배달의 단오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축제 준비부에 참여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지역사회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구, 기죽, 지인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배달의 단오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유튜브 강릉단오제단오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손님을 접한 시민들은 환영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했다.



한구, 기죽, 지인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배달의 단오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江原日報

2020년 06월 26일 (금)  
사회 05면



가득 내걸린 단오등 단오인 25일 강릉 단오제위원회 공원에 단오등만 내걸려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릉=권태영기자

2020년 06월 26일 (금)

지역 11면

## 강원도민일보

### 강릉 단오제 위원회, 신주 농가 쥐 '훈훈'

강릉 사투리뉴스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500명

"뭐이 술까정(술까지) 가져 오나라고 그려나, 이러 고상(고생)을 안해 도되는데..."

단오날을 맞아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코로나19로 고상(고생)하는 의사선상(의사선생)들에게 단오 신주를 농가(나눠) 쥐는 길을 끌고 있다.

받으니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다며 "사람을 당최(도대체) 볼 수 없는 온라인 단오제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마무리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어 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6일 (금)

지역 11면

### 이동규 씨 '단오 창포주 선발대회' 대상

도지사·강원도민일보 사장 공동상

'천년축제' 강릉 단오제를 맞아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단오 창포주 선발대회' 시상식이 25일 강원도민일보 강릉본사에서 열렸다.

이동규 씨는 "젊은 나이에 술을 빚으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수상으로 가야 할 길의 확신이 생겼고, 훌륭한 단추를 켜 기분"이라며 "앞으로 품에 경연을 벌였고, 대상 포함 모두 10명의 참가자가 입상했다. 이연제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원도민일보사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단오 창포주 선발대회' 시상식이 25일 강원도민일보 강릉본사에서 열렸다.

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80여명이 창포주 막걸리를 출품해 경연을 벌였고, 대상 포함 모두 10명의 참가자가 입상했다. 이연제

## 江原日報

2020년 06월 29일 (월)

지역 12면

## 강릉단오제 시공간 초월 전 세계인 축제 입지 굳혀

미국·캐나다·호주 등지에서 신주미 봉정 100가마 넘어 시상 첫 온라인 단오제·유튜브 활용으로 젊은층에 인기 8일간 15개 프로그램 진행 '글로벌 단오' 각인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초 온라인으로 펼쳐진 2020 강릉 단오제는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인이 강릉단오제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지에서 신주미 봉정 100가마 넘어 시상 첫 온라인 단오제·유튜브 활용으로 젊은층에 인기 8일간 15개 프로그램 진행 '글로벌 단오' 각인

다 1,400% 이상 증가했다. 행사 기간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유입 수는 4만명 정도였고, 페이지뷰는 10만회를 넘는 등 큰 성장을 보였다.

## 강원도민일보

2020년 06월 29일 (월)

지역 11면

## 공간 경계넘은 단오, 세계인 축제로 자리매김

온라인 강릉단오제 폐막 신주미 봉정 릴레이 첫선 중국인론사 등 관심집중



'천년의 축제' 2020 강릉단오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에서 펼쳐진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28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지난 21~28일 펼쳐진 '온라인 강릉단오제'는 전세계의 수많은 축제가 중단·취소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이끌면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도시 다운 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년의 축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가 지난 21~28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온라인 단오 흥보단 단따리는 강릉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강릉단오제위원회 NEWS

강릉단오제

지나온 천년·이어갈 천년  
2020강릉단오제



제1차 정기이사회 1월 21일(화)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

2020 정기총회 1월 28일(화)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 내부워크숍 2월 12일(수) ~ 13일(목)

2020 강릉단오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2차 정기이사회 5월 11일(월)

코로나19로 인한 2020강릉단오제 행사 개최 및 진행상황에 대한 심의와 보고를 하였다.

2020 임시총회 5월 12일(화)

코로나19로 인한 2020강릉단오제 행사 개최 및 진행상황에 대한 심의와 보고를 하였다.



신주빚기 5월 27일(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정문화재 행사인 신주빚기가 관계자만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대관령 산신제, 성황제,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 봉안제

6월 6일(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정문화재 행사인 "대관령 산신제, 성황제,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 봉안제"가 관계자만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강릉 SNS 기자단 간담회 6월 9일(화)

강릉시SNS기자들을 대상으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축제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다다오제

지나온 천년·이어갈 천년  
2020강릉단오제



### 임시 소이사회 6월 11일(목)

2020 온라인강릉단오제 행사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 기자간담회 6월 17일(수)

관내의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축제 진행 상황 및 일정 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강릉문화관련 포럼 7월 1일(수)

강릉문화, 폐쇄적인가 개방적인가의 주제로 강릉문화의 발전방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였다.

천년의 축제

# 수릿날, 강릉

제 15  
호

---

천년의 축제 수릿날,강릉 제15호

발행일 2020. 9

발행처 (사)강릉단오제위원회

발행인 김동찬

발행위원 김문란 김형준 전찬균 박현영 최유진 곽연희

기획편집 문화더하기(김만재 김은숙 박경란 정수연)

인쇄 · 디자인 중앙칼라, 까치호랑이

---

강릉단오제위원회

25586 강원도 강릉시 단오장길1, 2층

(노암동,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전화 033-641-1593 팩스 033-646-1595

www.danojefestival.or.kr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사)강릉단오제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사)강릉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축제

# 수릿날, 강릉

[www.danojefestival.or.kr](http://www.danojefestival.or.kr)

